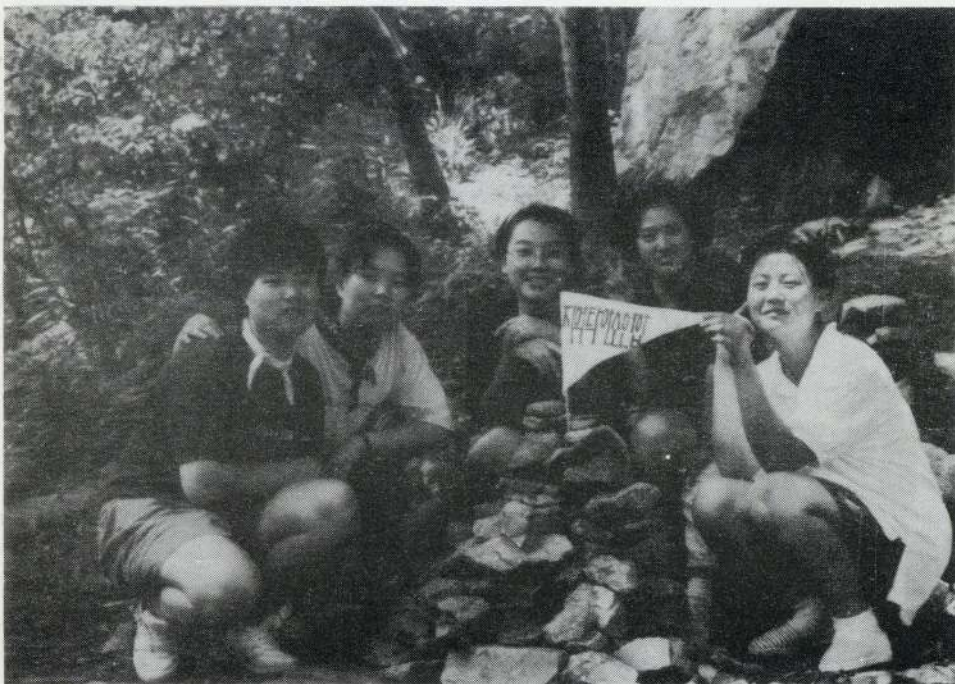


탁아활동의 길잡이

함께 가는 길

1992. 8. 제2호



지 역 사 회 탁 아 소 연 합 회

함께 가는 길

자 임 새

일하며 생각하며 / 2

8월은 폭 쉬는 달 (?)

정희연

만나보았습니다 / 4

두레방을 모르신다구요?

이정희

기획 1 / 8

한국사회 복지정책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김연명

기획 2 / 15

현시기 통일정세와 범민족대회

자모조직 / 21

소모임 사례분석

자모조직분과

교사조직 / 29

지탁연 탁아교사 설문조사 분석결과

교사조직분과

교사가 쓴 동화 / 40

까치와 까마귀 (3)

김난희

활동총괄 / 42

'92 지탁연 하계수련대회

탁아소 별곡 / 43

일하며 키우며

위양자

소식과 소식 / 45

우리들의 목소리 / 52

편집부에서 / 56

☆☆표지 사진 : '92 하계수련대회 동반대회 중 계룡산 남매탐앞, 지탁연 교사들이 쌓은 돌담에서 수원지역위원회가 웃고 있다.

8월은 쉼 쉬는 달 (?)

정희연 (부회장, 소식지 편집부장)

답부터 말하자면 물론 “아니다”이다.

“덥다, 더워”하는 옆사람의 얘기도 듣기 싫은 한 여름.

취끄리같이 짧기만 한 방학을 연합회 수련회다, 지역위원회 수련회다 다 보내고 개학을 맞은 동지 여러분의 얼굴이 떠오른다.

“아, 쉬고 싶다!” 맞다. 백번 맞는 말이다. 열심히 일을 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 갖는 휴식의 시간은 얼마나 중요하던가!

상반기 활동을 끝내고 하반기로 접어드는 8월은 그래서 항상 활동의 공백기이기 쉽다. 대충 7월중에 활동평가는 끝난것 같고 아직 본격적인 하반기활동의 시작은 아닌것 같고, 게다가 태양은 뜨겁고 연일 산으로 바다로 나오라고 유혹(?)해 대고, 그래서 우왕좌왕 좌충우돌 하다 대부분 8월을 보내게 된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 8월은 몇 달 없는 하반기를 준비해야 하는 더할나위 없이 중요한 시기임을 다시한번 생각해 봤으면 한다.

휴식을 취하며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며 여지껏 개별 탁아소 평가, 각 분과 평가, 지역위원회 평가 등 여러 활동평가들은 해왔는데 정작 나 자신, 개인의 활동 점검의 시간은 충분했는지, 년초에 세웠던 계획들은 어느정도 맞아 들어가고 있는지, 다시금 되새겨 보는 시간을 갖는 건 어떨까.

이번 하계수련회 때 조별 토론 주제로 가장 많이 선정된 것은 활동가들의 정치의식을 어떻게 고양시킬 것인가 였다. 문제가 무엇인지 알았다면 반은 해결된거나 다름없다. 어떻게 우리들의 정치의식을 높일 것인가. 항상 개인적으로 부족하다 느껴왔던 이 문제를 ‘나’는 어떻게 풀려했던가. 그리고 우리조직은 어떻게 해왔던가.

올 하반기는 다른 어느 해에 비해 더욱 중요하다고들 한다. 전체운동에 있어 대통령선거가 갖는 의미, 또한 우리 운동에 있어 내년도 전면적인 영유아보육법개정 싸움을 준비하는 시작으로 하반기의 중요성이 두드러진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획득할 것이고 무엇을 새로운 과제로 남길 것인가. 나 '는' 어떻게 '하반기'를 '준비'할 '것인가. 나의 '고난의' '삶'이 '삶'을 '주'는 '우리' '조'식의 '활동'력은 높아질 것이다. 즐거운 휴가를 보내자. 산도 좋고 바다도 좋다. 조용한 산사(山寺) 라면 더욱 좋겠다. 8월은 '나'를 되돌아 보고 다시 힘차게 내일을 맞는 정지된, 공백의 달이 아닌 조용히 그러나 밑에서부터 용솟음 치는 그런 휴식의 달이 되도록 하자.

8월은 쉼 쉬는 달 ?

맞는 말이다. 쉬기는 쉬는데 발등에 불 떨어지는 9월이 되지 않도록 준비하고 고민하며 쉬는 달이 되도록 하자.

동지 여러분! 8월의 무더위속에 갖는 서늘한 자기 성찰의 시간, 확실한 피서 방법 아십니까?

**** 권하고 싶은 책 ****

* 청년을 위한 한국 현대사 --박현채 지음, 소나무 펴냄--

고난과 희망의 민족사(1945~1991)의 부제를 단 이 책은 한국사회의 변혁 운동적 관점에서의 연구성과를 담고 있다. 특히 현대사를 5시기로 나누어 각 시기의 주요사건과 함께 정치, 경제, 사회 부문별로 그 시대사를 총괄하고 있어 현대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 도움을 주고 나아가 현민족민주 운동이 직면하고 있는 과제 해결방안도 모색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468쪽, 6,000원)

* 민족건강 요법 생명의 파고를 넘어라

--이기환, 박미자 지음, 열린 펴냄--

민족건강 교실을 열고 있는 저자가 강론한 내용과 실시하여 좋은 효험을 보고 있는 여러가지 건강 요법을 정리한 책. 인체의 원리, 병이란 무엇인가, 음식 무엇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 기란 무엇이며 어떻게 쓸 것인가 등 4가지 주제에 관한 글이 실렸다. (229쪽, 4,200원)

만나보았습니다.

두레방을 모르신다구요?

이정희 (편집부)

그녀의 외모는 적당한 길이의 생머리, 올망졸망한 눈, 코, 입이 전체적으로 귀엽다고 느껴지는 얼굴. 그리고 약간 코먹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 가장 매력있는 것은 누구라도 붙잡으면 수다를 떨어 쉽게 벽을 허물어 버릴것 같은 앳되고 친근한 표정이었다. 차은영. 이화여대 중문과 88학번으로 현재 동두천의 두레놀이방, 공부방 교사이다.

제7기 지탁연 교육생으로 지탁연과 인연을 맺고 있고, 우리에게 좀 생소한 '기지촌 탁아'를 하는 두레놀이방에 대해서도 궁금하여 만나보았다.

이정희: 어떻게 이일에 함께 하시게 되었는지 말씀해주세요.

차은영: 학교 다닐때 애기를 좀 해야 겠네요. 신입생때 선배의 강요에 의해 몇모르고 여성학회엘 들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제게 쪽쪽 다가오는 문제들을 많이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2학년때부터 막연하게 '여성운동'을 하고 싶다는 마음을 먹었는데 4학년때 그때까지 제게 영향을 많이 주시던 언니가 마침 총학생회 기지촌 활동 책임자였어요. 그 언니의 권유로 시작하게 됐죠. 두레방에서 활동하고 싶어하는 분들은 많은데 저는 너무 쉽게 이 일에 함께 하게 되어 운이 좋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회: '두레방'에 대해 아직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탁아소 교사들에게도 생소한 편인데요. 소개 좀 해주세요.

은: 두레방은 86년에 송산 스텐리 캠프 (핵보유기지, 약 3천명 미군 주둔) 미군부대 후문쪽에 이뤄진 전형적인 기지촌 한 가운데에서 처음으로 문을 열었어요. 처음엔 성병진료소와 낙검자 수용소를 방문해 여성들을 만나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만난 여성들이 한결같이 원하는 것은 영어공부였어요. 그래서 두레방은 이 여성들의 입장에 서서 이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도와주며 함께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교양 영어 교실을 개설했습니다. 이외에도 상담활동, 놀이방, 공부방 운영 그리고 89년부터는 빵만드는 프로그램도

함께 하고 있어요. 90년에는 동두천에도 두레방이 문을 열었구요.

회: 놀이방 운영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은: 대상아동은 혼혈아 뿐만 아니라 지역 아이 (상업, 포주)를 받고 있으며 연령은 만 2세부터 만 5세로 현재 22명이 있어요.

10시 30분에 시작해서 11시 20분까지 자유놀이, 11시20분에서 12시까지는 색칠, 만들기 등 공작 시간, 12시에서 12시 20분까지는 간식, 12시20분에서 1시까지는 바깥놀이, 자유놀이 등으로 1시면 일과가 끝납니다.

저희는 정말 종일반이 필요한 곳인데도 오후엔 그 공간에서 공부방이 운영되기 때문에 종일반 운영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내고 나면 너무 걱정이 돼요. 1시에 나가도 갈 곳도 없고, 놀아줄 사람도 없으니 아이들이 몰려다니며 비디오를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항상 다음날 오면 어제 뭐하고 놀았는지 확인을 합니다. 공간 확보, 교사 확보가 시급한 문제예요.

회: 아이들 애기도 해주세요.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많을것 같은데..



(두레놀이방 아이들과 함께. 왼쪽에서 두번째가 차은영 교사)

은: 어디든 마찬가지겠지만 지역상황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요. 군사문화, 미국의 저질문화가 퍼져있고, 특히 성(性)이 많이 노출되어있어 이를 건장한 문화로 채워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저희는 혼혈아동의 문제가 가장 큰 고민거리인데, 어린나이에 불구하고 엄마나라의 문화를 무시하고, 영어를 못한다고 엄마까지도 무시하곤 해요. 그럴땐 '너는 미국아이기도 하지만, 엄마가 한국인이니 한국아이기도 하다.'라는 지적을 곧 해주고 한국문화에 대해, 그리고 한국인으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쳐요. 또 백인혼혈과 흑인혼혈, 한국 아이들이 모두 모여 있으니 피부색에 대해 민감하고, 애들사이에서도 차별의식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피부색에 대한 평등함을 가르쳐주는게 이곳 놀이방, 공부방에서는 교육의 큰부분을 차지한답니다. 지탁연 산하의 여러 빈민, 공단 탁아소와 다른점은 아마 이점일텐데요, 저희는 노동하는 부모에 대한 자긍심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또 사회에서 혼혈아를 보는 시선이 곱지 않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사회에서 적응하기가 무척 어려울 것 같아 교사로서 아이들의 장래를 생각해보면 무력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설사 이민을 간다해도 거기서는 한국애로 취급을 당하거든요.

회: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 어디든 사회구조적 문제로 가장 고통받는 이는 아이들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욱 탁아소교사들의 역할이 중요한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활동속에서 어떤 전망을 잡고 계십니까?

은: 저는 결혼해서도 이 일을 계속하고 싶어요. 정말 누구라도 보면 우리 두레방의 분위기가 얼마나 인간미 넘치고 함께 일하는 아줌마, 언니들이 얼마나 따뜻하고 좋으신 분들인지 자랑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말과 글로만 접하던 미국의 존재도 더욱 선명해집니다. 상담을 통해 우리의 평범한 어머니, 누이인데도 그런 생활속에 수많은 아픔을 고통스럽게 짊어지고 계신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그분들과 끝까지 함께 해야 한다는 결의도 다져지고요. 그리고 이곳 두레방은 철저하게 사람을 배려하는 곳이어서 앞으로 결혼이나 출산의 문제도 별로 불안하지 않아요.

회: 제7기 교육강좌를 받으셨는데요. 교육이 많은 도움이 됐는지요? 앞으로 지탁연과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은: 학교생활에서 아동반 한 기억밖에 없었는데, 실무적인 것이 도움이 많이 됐어요. 특히 이미 활동하신 선생님들의 경험 얘기가 많이 도움됐어요. 처음엔

지역이 특수해서 배운것들을 적용하는 것이 걱정스러웠는데 그 선생님들 얘기를 들으니 우리지역에만 있는 일이 아니구나를 느끼게 됐어요. 그러면서도 고민이 되었던 것은 지탁연과의 연대활동을 어떻게 해나가야 할까 였어요.

지금은 지탁연에 도움을 받고자하는 소극적 과정인데, 두레방에서도 어떤 점을 도움을 받고 어떤 면에서 같이 연대할 수 있을까 얘기가 많이 돼요.

많은 분들이 특수한 문제라고 치부하면서 그 지역에서 해결해야 된다고만 생각하시는데 기지촌 문제도 사회전반의 모순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회: 오늘 말씀 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차은영 선생님은 두레방 빵의 의미를 꼭 써달라고 했다. 그곳 여성들이 건강한 노동자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로 자리잡은 빵 프로그램은 빵 판매가 많이 되어야 더 많은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다며, 두레방 빵을 보거든 많이 사주고, 회의때나 아이들 간식으로 필요하면 언제든지 주문해 달라고 하셨다.

이번주 일요일엔 7기 교육생들이 모두 모여 관악산엘 가기로 했다고 좋아하며 돌아서는 뒷모습을 보니 차은영선생님의 동두천에서의 활동모습이 눈에 보이는 듯 했다.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

김연명 (중앙대강사, 사회와 복지연구회 연구원)

현재 사회복지관련 단체간의 연대가 모색되고 있고 지탁연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탁아문제해결이 사회복지정책으로 자리하고, 이후 이에 대한 우리 활동에 시사하는 점이 있다고 여겨지기에 사회복지정책전반에 대한 내용을 2회에 걸쳐 실기로 합니다.
(편집부 주)

I. 자본주의하의 사회복지에 대한 세 가지 시각

서로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가진 제 계급, 계층으로 나뉘어진 자본주의하에서의 사회복지의 생성, 발전 그리고 사회복지의 성격(자본가를 위시한 지배계급의 기만인가 아니면 민중의 쟁취물인가?)에 대한 해석은 크게 세가지의 시각이 존재한다.

1. 자본과 국가의 논리로서의 사회복지

첫번째 시각은 일명 '자본논리론'으로 사회복지를 자본주의가 유지되기 위해 필요한 건강한 '노동력을 재생산'하기 위해 국가와 자본의 주도하에 형성된 것으로 보는 입장이다. 이들은 개별 자본가의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착취가 전체노동력의 파괴를 가져와 자본주의 생산 양식이 위협당하면 총자본(국가)이 자본일반의 이익을 위해 노동을 위한 사회복지정책을 떠맡게된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산재보험, 의료보험등은 직접적으로 노동력을 보존, 재생산하는 기능을 갖는다)

또한 불황시에 사회복지에 대한 재정확대는 유효수요를 창출시켜 자본의 원

활한 축적을 돕게된다.(케인즈이론에 입각한 미국의 타운센드(townsend)운동)

또한 국가는 국가기구 자체의 상대적 이해관계에 따라 때로는 일부 자본분파에 위험이 되더라도 정당성 확보를 위해 사회복지를 실시하게 된다.

이렇게 보면 자본주의하의 사회복지의 성격은 노동계급의 '쟁취물'이 아닌 자본가의 자본축적을 돕고 국가의 지배를 정당화시키는, 본질적으로 지배계급을 위한 사회복지로서의 성격을 갖는것으로 인식된다. 이 시각의 운동론적 함의는 사회복지운동='기회주의'라는 시각으로 연결된다.

2. 민중의 논리로서의 사회복지

'계급투쟁론'으로 부를 수 있는 이 시각에서는 사회복지를 노동자를 핵으로 하는 민중진영의 계급투쟁에 국가와 자본이 양보한 것으로 이해한다. 즉 '자본'은 타인의 노동을 흡수하는 '축적'욕구가 그 본질이고, 또한 자본가의 입장에서 보면 사회복지에 지출되는 부담금(예, 산재보험금이나 의료보험료)은 잉여가치의 소모이기 때문에 노동자 (민중)의 요구가 없다면 자본(국가)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다. 즉 사회복지를 실시하지 않는다. 또한 열악한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민중들의 투쟁이 발달된 자본주의라는 조건속에서는 사회복지요구운동으로 발전, 전파하게 된다. 예를 들어 이러한 입장에서 나바로(V. Navarro)는 "계급투쟁이 사회입법과 의료입법의 중요한 결정인자이다. 사실 지금까지 존재했던 모든 사회의 역사(그리고 그 사회의 사회입법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시각에서는 사회복지라는 것은 결국 노동계급을 위시한 민중의 계급투쟁의 결과이며 따라서 사회복지의 성숙은 지배계급의 '기만'이 아닌 민중들이 국가와 자본의 저항을 극복하고 쟁취한 '전리품'으로 이해한다. 때문에 사회복지운동에 개량주의 이상의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

3. '모순' 으로서의 사회복지

이 시각은 '계급투쟁-자본논리론'으로 부를 수 있는데 자본주의하의 사회복지를 자본주의의 기본모순인 노사간의 모순이 현상화된 형태로 이해한다. 즉 사회복지를 민중의 전리품 혹은 자본과 국가의 기만이라는 단선적 시각으로 이해하지 않으며 민중의 요구라는 긍정적 측면과 자본의 요구라는 부정적 측면이 결합되어 있는 '모순'된 성격으로 인식하게 된다. 이들은 사회복지의 긍정적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복지국가의 억압적이고 자본지향적인 측면을 간과하게 되며,

반대로 부정적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민중들이 쟁취한 실제적인 이득을 간과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계급간의 '힘의 관계'에 따라 기존 사회복지제도가 민중들의 역량을 강화시켜주거나 생활의 질을 높여주는 기능을 하게 되고 혹은 그 반대로 국가와 자본측에게 유리한 기능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민중의 역량에 따라 사회복지의 기만적 성격이 더 부각될 수도 있고 반대로 '전리품'으로서의 성격이 더 부각될 수도 있다.

II. 사회복지의 이념형

조금 단순화 시키자면, 사회복지의 공급을 시장메카니즘 위주 (상품화)로 설정하느냐, 국가(탈 상품화)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여러가지 모형이 있을 수 있다.

1. 자유주의형

사회복지를 자본주의가 원활하게 움직이기 위해 필요한 보조물로서 그리고 시장체제의 약점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인식한다.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개입이 매우 소극적인 양상을 띄며, 또한 사회복지가 하나의 보편적 권리로서 인정되지 않고 일정 소득이하의 저소득자와 취약계층에게만 집중적으로 부여된다.(선택주의)

보장되는 수준 역시 최저한의 수준만을 보장한다. 보건의료, 소득, 주택 등의 공급을 시장메카니즘의 수요, 공급에 의존하여 이것이 상품으로서 매매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간주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80년대 중반 이후 이 모델을 설정하고 이 모델로 근접해 들어가는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추세다.

2. 사회민주주의형

사회복지가 자본주의의 결함을 적극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인식되며 사회복지가 하나의 권리로서 보장된다. 그리고 사회복지가 계층, 계급에 따라 차별적으로 분배되지 않으며 모든 국민들에게 보편주의적으로 공급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 보건의료, 소득, 주택 등의 사회복지에 있어서 사회화된 정도가 매우 높으며 상품으로서의 성격이 상당히 탈색된다. 그러나 자본주의 자체를 포기하지는 않으며 기본적 사회의 작동원리로서 시장메카니즘을 인정한다.(북구라파의 제국, 특히 스웨덴이 이 모델의 전형으로 평가된다)

3. 사회주의형

사회주의형은 사회복지가 하나의 권리로서 인정된다는 점에서 사회민주주의

형과 유사하나 완전한 보편주의 그리고 사회복지의 공급이 완전하게 탈 상품화가 되고 철저한 국가계획에 의해 주도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또한 사회주의를 공산주의 초기단계로 이해할 경우 '능력에 따른 분배'라는 사회복지의 분배원리가 관철되나 공산주의 단계에서는 소위 '욕구에 따른 분배'원칙이 적용된다. (후자의 원칙을 철저히 구현한 사회주의 국가는 아직 없다. 공산주의 초기단계에 돌입했다고 주장하는 북한 조차도 전자와 후자의 원칙이 결합되어 나타난다.) 소련을 모델로 설정된 이 모형은 최근에 적합성을 상실한 듯하다. 즉 일정한 생산력수준이 확보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의 사회복지는 제도의 형태와 내용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어도 지속성을 갖출 수 없다는 것이 사회주의권의 경험이다. (동독 사회보장제도의 파멸과 서독제도로의 흡수 그리고 구 소련 사회보장제도의 위기)

III.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실태

1. 사회복지의 실태: 사회복지재정을 중심으로

한 나라의 사회복지 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나 다른 나라와의 비교고찰을 통한 방법이 가장 적절하다. 그러나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라는 추상성이 높은 범주를 비교가능한 양화된 지표로 표현하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이다. 때문에 '국가사회복지'(사회보험, 공적부조 등 국가가 법령에 입각해 실시하는 사회복지)의 수준을 비교할 경우에는 사회복지비로 투입되는 국가재정 (국가일반예산)을 비교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다.

한국의 국가사회복지의 실태가 얼마나 열악한가는 우리나라와 경제력 (생산력)수준이 비슷한 국가의 정부예산을 비교해 보면 극명하게 드러난다. <표 1>은 세계각국을 국민소득을 기준으로 3개국가군으로 분류한 후, 정부예산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를 비교해본 것이다. 'A군'은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국가들로서 서독, 프랑스, 스웨덴 등이고, 'B군'은 중진국으로 브라질, 우루과이, 칠레등이며 (한국은 여기에 속한다) 'C군'은 후진국으로 말레이시아, 요르단 등이다. A군은 선진국답게 약 53%를 사회복지비로 지출하고 있고, B군은 약 32%, 우리보다 훨씬 '못 산다'는 C군도 약 25%의 국가재정을 사회복지비로 지출하는 반면, 한국은 이들의 절반은 커녕 10%도 안되는 9.6%만을 사회복지비로 쓰고 있다.

더욱이 GNP에서 차지하는 1인당 사회복지비 수혜액을 보면 한국이 포함되는 B국가군의 16%는 고사하고 C국가군의 4.03%에 못 미치는 1.65%에 불과한 참으로 한심한 수준이다. 더욱이 <표 2>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조세부담율이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임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상대적으로 부담하는 조세에 비해 되돌려 받는 사회복지혜택은 매우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국가재정 중 복지비로 투입되는 예산이 절대적으로 적기때문에 사회복지의 확충에는 항상 '국가재정중립', '수익자부담원칙' 이데올로기가 따라다니며 질적인 확충보다 전시행정적인 양적인 확충에 치우치는 것이 한국 국가사회복지정책의 특징이다. 예를 들어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의료보험의 본인부담율이 심지어 67%까지 나타나는 것, 노인·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가 종류는 다양하나 질은 형편없는 '잡화상'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표 1> 각국 정부예산 지출의 구성비율 (%)

	국가예산 지출 항목 ('87)				GNP대비 1인당 사회복지비 수혜율
	국방비	복지비	교육비	기타	
선진국 (A)	8.21	53.44	7.19	31.16	25.69
중진국 (B)	12.41	31.57	9.47	46.66	16.02
후진국 (C)	12.84	24.60	11.90	50.58	4.03
한 국	27.31	9.60	18.34	44.65	1.65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Report 1988'

<표 2> 주요 국가의 조세부담율 (%)

한국(90)	일본 (87)	미국(87)	서독 (88)
10.7	21.2	20.8	22.7

2. 한국의 사회복지를 규정하는 요인

이와 같이 한국의 국가사회복지 수준을 우리와 경제력이 비슷한 나라와 비교할 때 형편없이 낙후되게 만든 근본적 요인은 냉전체제로 인한 과도한 국방비 부담과 극단적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전횡, 민중조직과 그 힘의 취약성, 그리고 한국 자본주의의 종속적 재생산구조의 영향을 들 수 있다.

냉전체제와 한국의 사회복지수준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낮은 사회복지

지수준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냉전체제는 2차대전 이후 자본주의권에 소련등의 사회주의권의 성장·발전을 의식하여 (현재는 실패로 귀결되었지만 60년대까지 소련의 경제적 성장은 괄목할만한 것이었다.) 노동자를 필두로 한 자국의 민중들에게 상당한 정도의 사회복지제도를 확충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긍정적 영향) 반면에 자본주의권은 사회주의권을 의식한 군비확산을 시도함으로써 사회복지 부문에 투입되는 재정을 제약당하게 된다 (부정적 영향) 한국은 냉전체제가 6.25를 기점으로 매우 극한 상태로 진행된 경우이며 두가지 측면에서 국가사회복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첫째, 한국은 경제적 능력에 비해 과도한 국방비 부담으로 사회복지비에 투입될 수 있는 재정을 제약당하게 된다. 6.25 이후 한국은 미국의 세계전략에서 반공군사기지로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고, 미국은 한국에 막대한 군사원조를 시작하면서 전후 불과 몇년 사이에 한국을 일약 세계 속의 군사대국으로 부상하게 만드는 대대적인 군비확장을 일으킨다. 현재 세계7위의 막강한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는 한국의 군사비는 매년 GNP의 6%, 국가예산의 30%를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당연히 사회복지로 투입되는 국가재정은 적어질 수 밖에 없었다. (소위 국방비 등 경직성 경비 때문에 사회복지예산의 확보가 빈번하게 좌절된 것이 그동안의 경험이다)

둘째,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 냉전체제는 남한에서 사회복지가 성장할 수 있는 이념적 토대를 제거하는 기능을 해왔다. 원래 사회복지의 자본주의의 '수정'을 전제로 하는 이념이 필요한데 6.25이후 극단적인 반공이데올로기와 천박한 자유주의의 전횡은 자본주의의 '수정'이라는 이데올로기가 함축된 사회복지제도를 주창하는 것조차 힘들게 만들었다. 예를 들어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의료보험등의 사회'보험'을 실시하자는 주장조차도 '불온하다'고 매도당해온 것이 현실이다. 6.25를 기점으로 남한에서 완전히 사라진 '진보적'민중조직의 결여가 또한 한국의 사회복지수준을 낮게 만든 요인 중의 하나이다. 다 아는 것처럼 서구의 경우 노동조합을 중심으로한 진보적 민중조직들 (진보정당, 시민조직 등)이 사회복지확대 투쟁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6.25이후 우리나라는 진보적 정치조직의 결성은 고사하고 노동조합조차 자유롭게 결성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것이 사회복지가 확대되는 경로중의 하나인 '민중들의 생활상의 요구투쟁을 통한 사회복지의 쟁취'라는 길을 6.25이후 80년대 중반까지 거의 30여년동안 봉쇄

시켜 버렸다. 때문에 80년대 이후, 특히 80년대 중반에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제도의 확충이 눈에 띄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노동조합을 포함한 80년대의 진보적 민중(정치)조직의 결성과 이들의 일상적 정치, 경제투쟁의 활성화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 자본주의의 '종속적' 재생산 구조가 또한 사회복지의 확대를 제약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60년대 이후 국가주도하의 급속한 산업화의 기본 전략은 자본과 기술을 외국에 의존한 채 값싼 노동력을 기반으로 상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전략이었다. 그 결과로서 흔히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로 표현되는 한국자본주의는 창출된 경제잉여의 끊임없는 해외유출(외채 혹은 로얄티 등의 지급)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즉 경제활동을 통해 창출된 부의 상당부분이 외국 독점(금융)자본의 손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재투자를 위한 자본 부족에 직면한다. 때문에 민중의 힘이 강하게 치고 올라올 때도 민중과의 타협을 위해 양보해야 할 국가와 자본의 경제적 능력은 생산력 수준에 비해 부족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때로는 사회복지의 확대가 특정 시기의 우연적인 정치, 경제적인 상황에 의해 좌우되는 것 같지만 그 근저에는 앞에서 서술한 요인들이 적어도 해방이후 한국의 국가사회복지 수준을 '우리나라와 경제력수준이 비슷한 나라에 비해' 형편없게 만든 것이다.

이러한 제약조건으로 인해 한국의 사회복지정책의 기본방향은 경제성장을 위한 투자에 방해가 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일부 계층(극빈층)에게는 사회복지실시하되 선택주의적 방법으로, 그리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에 대해서는 국가의 재정중립원칙을 지키며 당사자들이 해결하게 하며, 또한 되도록이면 수익자부담원칙을 고수하고, 전시행정적인 성격위주로 전개되어온 특징을 갖고 있다.

〈다음호에 계속〉

현 시기 통일정세와 범민족대회

남과북, 그리고 해외에 흩어져 있는 7천만 겨레의 통일을 향한 염원을 한 데 모으는 통일 만남의 장인 제3차 범민족대회가 8월12일에서 17일 까지 열린다. 남북합의서 채택이후 그 어느때보다 통일을 위한 좋은 조건이 조성되어가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을 조건을 마련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해왔던 민간통일운동이 합의서 채택이전보다 더 큰 탄압받고 있고, 또한 합의서 내용의 하나인 고향방문단 마저도 무산되는 등 합의서 이후 고양되었던 남북대화의 분위기는 주춤거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범민족대회와 관련하여 현시기 통일정세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에 도움을 주고자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의 기관지 「연대와 전진 5호」에 실린 "현시기 통일정세와 범민족대회 (이보은/자주통일위)"를 요약정리하여 게재한다.

〈편집부 주〉

현재 통일정세의 특징은 민중운동 차원에서 통일운동의 성장과 국제적인 탈 냉전의 결과가 맞물리면서 조성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해방이후 통일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민중의 투쟁은 그 이후 산발적으로 이어져오다가 80년대 후반부터 폭발적으로 발전한다. 86년 이후 통일운동의 발전이 남한정권에게도 통일을 소홀히 할 수 없게 만들었다. 마치 민주주의에 대한 민중의 투쟁이 고양되면 정권도 민주주의를 가장하는 것처럼, 통일운동이 발전하자 정부도 이를 탄압하고 있을 수만은 없게 된 것이다.

새롭게 정립되는 남북관계

여기에 냉전체제의 해체로 남북관계도 새롭게 정립될 필요에 직면하였다. 분단이 2차대전 이후 냉전체제의 산물이라면 현재의 냉전체제 해체는 분단극복의 기회가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남과 북의 정부가 남북관계의 새로운 틀을 만들고자 대화를 추진한 것이다. 남북합의서 채택은 바로 이러한 결과이다.

92년 이후 수립될 신국제질서는 앞으로 몇십년동안 국제관계의 기본질서를

이룰 것이다. 이 시기에 형성될 남북관계의 새로운 틀 역시 몇십년간 남북관계를 규정할 것이다. 냉전의 해체와 신국제질서의 수립으로 특징지어지는 현 시기는 우리민족에게 분단극복을 위한 절호의 기회가 된다. 합의서 채택, 비핵화 선언등의 조치를 통일을 위한 평화적 해결조성으로 이끌어내야 한다.

미국의 정책

미국은 걸프전 이후 핵사찰을 고리로 하여 대북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의 대북공세는 이라크와 리비아에 대한 공세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주의 세력의 와해이후 반미국가로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신세계질서를 수립하기 위한 미국의 구상이 실현되려면 반미국가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핵문제 해결전망

핵통제위가 남북사이에서 운영되고 있다. 국제원자력 기구에 의한 북한의 핵사찰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북한이 핵사찰을 받아들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 공방은 쉽게 끝날 것 같지가 않다. 미국이 핵사찰을 강제한 이유가 북한의 개방에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남북한의 상호사찰을 강요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 비롯된다. 이는 군사정보 수집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핵사찰 수용여부에서 핵사찰의 대상과 방법으로 갈등이 변형되어진 북한 핵문제는 이제 연변의 방사화학실험실에 대한 포기 문제에 이르렀다.

핵사찰분쟁의 변형으로 대북압력이 현저히 약화되었다. 대북압력의 약화를 메꾸기 위하여 미국은 미사일 수출, 인권문제와 같은 새로운 압력수단을 창출하고 방사화학실험실의 성격을 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원자력 기구의 핵사찰이 진행될 수록 대북압력의 명분은 약화될 것이다.

북한은 핵사찰 수용이후 조미관계개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 역시 대북공세를 변형시키면서도 이러한 북의 요구에 불응할 수 없다. 따라서 조미간의 관계는 올해를 지나면서 어느정도 윤곽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남한정부 통일정책의 의도

남한정부는 대북정보를 철저히 미국에 의존한다.. 따라서 남한정부의 대

북정책은 미국의 정보에 기초하여 작성된다. 그러나 남한정부와 미국과는 약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차이는 남한정부의 집권전략과 미국의 세계전략이 불일치하는 지점에서 발생한다. 핵문제보다 합의를 선행한 남한정부의 태도에 대하여 미국이 강력하게 제동을 건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따라서 남한정부의 입장은 미국의 요구에 기초하면서 통일을 집권전략에 활용하는 데서 출발하고 또 거기에서 더 나아갈 수 없다.

남한정부의 당면목표는 이른바 평화공존의 상태에서 대북우위의 실현이다. 이는 두개의 국가를 바탕으로 체제경쟁을 통하여 장기적으로 흡수통합을 지향하는 구상의 일환이다. 현 시점의 주된 정책은 '두개의 국가를 바탕으로한 체제경쟁에서 대북우위를 확보하는 것'이다. 남북당사자 협상,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진출과 창구단일화, 국가연합식의 통일방안 관철이 대북우위를 확보하려는 내용이다. 남한정부의 92년 목표는 두개의 국가체제의 제도적 정비이다. 아울러 노태우 대통령의 사후보장과 국내정치에서 활용하는 성과를 거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합의서 이행에서 불가침의 실행보다는 평화공존단계의 관리를 위한 교류문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북한의 통일정책

북한은 통일을 민족문제해결로 바라보고 현 시기를 민족문제 해결의 호기로 보고 있다. 군축, 미군철수 등 군사문제 해결을 강조하면서도 군사문제 해결의 속도에 보조를 같이하여 교류, 협력에 적극 임할 것이다. 북한의 정책을 바라보는데 있어서 핵심이 되는 것은 북한이 통일문제를 민족문제로 파악하고 현 시기를 민족문제 해결의 호기로 본다는 사실이다. 북한이 정상회담에 임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출발한다.

92년 북한의 최대목표는 반제자주와 연방제실현이다. 반제자주는 미군철수, 평화협정체결을 핵심내용으로 한다. 조미관계가 개선되어질 조짐이 보인다면 미군철수와 평화협정체결의 절차나 방식에서 변화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반제자주와 연방제 실현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문제가 아니다.

교류협력문제에 대해서 북한은 민족화해와 북한의 경공업문제해결을 중심으로 하여 전향적인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창구단일화와 군사문제 해결의 속도가 이를 제어할 것이다

92년 남북관계 전망

92년의 통일문제는 12월의 대통령선거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대선 이전 정상회담의 실현에 대한 전망이 필요하다. 북한은 80년대 중반 이후 구체적으로 정상회담을 거론하고 있다. 최근에 남한정부 역시 집권유지를 위한 활용으로 정상회담의 효용이 가장 크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정상회담의 가능성은 구체화되고 있다.

그러나 정상회담의 걸림돌은 연방제와 미국의 태도 (핵문제 진전)이다. 북한은 연방제가 합의되어지지 않는다면 정상회담을 반대할 것이다. 연방제의 수준은 80년대 고려연방제방식 보다 지역정부의 역할이 강화된 것이다. 또한 정상회담에서 연방제가 논의된다면 통일방안 확정을 위한 범민족적인 정치협상회의를 제시할 것이다. 결국 정상회담은 연방제와 정치협상회의가 연동되면서 진행될 것이다. 노태우 임기안에도 남한이 연방제를 논의하고 정치협상회의를 수용한다면 정상회담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권력누수기에 접어들고 있는 노태우정부가 대선 이전에 부담을 감수하고 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미국은 핵문제를 통한 북한의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남북관계의 발전을 원하지 않는다. 여기서 비롯되는 한미 갈등은 미국의 요구대로 정리될 것이다. 미국은 정상회담이 되더라도 주한미군과 한미군사관계에 변화가 생기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한미군에 대한 북한의 대폭적인 양보가 없는 한 미국이 정상회담을 지지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92년의 남북관계는 합의서 이행과 이를 위한 부속합의서 채택을 중심으로 형성될 것이다. 부속합의서는 예정대로 9월초에 채택될 것이다. 합의서 이행과 부속합의서 채택은 통일운동의 발전을 위한 유리한 조건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남한 내부에서 통일운동의 조직화와 민중운동의 뒷받침이다.

남북당국자들의 대화와 그 의미

합의서 채택 이후 통일정세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남북한 당국자 사이의 대화가 상당한 비중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통일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은 평화적 환경조성과 통일의 추진을 포함한다. 합의서 채택이 통일과정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바로 환경조성에 있다. 합의서에서 밝히고 있는 “민족적 화해

이룩”, “긴장완화와 평화보장”, “교류협력을 실현하여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라는 요소가 바로 통일을 위한 환경조성인 것이다.

이 점을 바로보지 못한다면 합의서를 남북한의 정권적 이해관계에서 비록된 것으로 규정하거나, 통일의 과정에서 당국자의 역할만을 강조하는 편향을 보이게 된다. 평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담당자는 남북한의 정권담당자이다. 비록 민족민주운동진영이 남한의 당국과 투쟁하고 있는 관계라고 하더라도 당국의 역할을 부인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조성의 과정에서는 양쪽 당국자의 역할이 필요하다. 민족민주운동 진영의 역할은 조성된 환경을 바탕으로 실제 통일을 추진 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것이다. 문제는 당국자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당국자가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느냐에 있다.

한편 민족민주운동 진영에서는 통일문제의 본성이 범민족적인 대화와 단결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당국자 사이의 대화는 범민족적인 단결을 촉진하는 요소로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당국자 사이의 대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민간차원의 통일운동을 부인하는 논리로 연결될 수 있다. 민간차원의 통일운동은 당국자 사이의 대화와 성과를 바탕으로 민족대단결로 나아가기 위해서 보다 중요해지는 것이다.

3차 범민족대회를 대중적으로 준비해야

따라서 올해 예정된 3차 범민족대회가 가지는 의미는 각별하다. 남북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시기이므로 3차 범민족대회를 통하여 민족대단결의 기운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통일조국의 건설이라는 최대의 민족이익을 수행하는 것이야말로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는 핵심이다. 따라서 남과 북 그리고 해외의 통일세력이 추진하는 범민족대회는 민족대단결을 고취시키는 운동이다. 이러한 사실을 간과한다면 범민족대회를 남과 북, 해외의 개별행사로 전락시킬 것이다. 민족대단결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친북, 중립, 반북의 영역구분은 무의미하다. 범민족대회는 말 그대로 우리민족의 하나됨을 추구하고 민족의 대단결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결코 친북, 반북 또는 남과 북의 중간지대를 확보하는 운동은 아닌 것이다.

합의서 채택 이후 그 성과를 바탕으로 통일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광범위한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범민족대회는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정

신을 바탕으로 광범위한 세력이 통일을 위하여 결집하고 결의하는 행사이다. 이러한 힘이 남과 북의 분열에 종지부를 찍고 단합을 이룩하는 바탕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실제로 정파와 사상을 뛰어 넘어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입각한 통일의 기반을 다져내는 작업을 3차 범민족대회를 통하여 이루어내야 한다.

1,2차 범민족대회와 3차 범민족대회는 합의서 채택의 전후라는 단순한 시기적 차이를 가지는 것만이 아니다. 40년간 대결해 온 남과 북의 정부가 합의서를 채택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결실을 뿌리내리기 위한 각계의 결의를 모아내는 운동이 필요한 것이다. 3차 범민족대회에서는 광범한 세력의 참여하에 민족대단결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바탕으로 다음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 합의서의 전면적 이행 촉구, 비핵평화군축, 민간급 대화 및 남북협상의 정당성 확보, 연방제적 통일방안에 대한 합의, 범민련의 정당성 확인등이 그것이다.

***** 북한 낱말 알아 맞추기 *****

북한은 말다듬기운동을 통해 가능한 한 우리 고유어를 쓰고, 일본어의 잔재를 없애며 외래어와 한자를 폭넓게 다듬어 쓰고 있다 합니다. 아래의 보기중에서 무슨 뜻인지 알아 맞추어 보세요.

소리판:	얼굴차:	단맛감:	들모음:	빨물길:
끝손질:	외동웃:	위생실:	갈기표:	단맛감:
들모음:	헛총:	알 축:	물맞이칸 :	끝끝하다:
결애기:	가을걸이:	공기같이:	덧머리:	형접구두:
동강웃:	남새:	큰물:		

보 기

볼펜, 깨끗하다, 원피스, 홍수, 냉장고, 레코드, 에피소드, 운동화, 환기, 시아게, 공포, 샤워실, 등호, 화장실, 채소, 추수, 소풍, 배수로, 투피스, 가발, 감미료,

소모임 사례 분석

자모조직 본과

1. 소모임 구성의 목적

월1회 실시되는 자모회의는 자모들이 모두 모이는 탁아소내의 가장 중요한 자모모임이다. 그러나 자모회의는 탁아소운영 전반에 관한 토의나 교육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등 제한된 형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한달에 한번꼴로 실시되기 때문에 자모회의만을 가지고 자모조직사업을 충분히 이루어 내기가 힘들다. 그래서 많은 탁아소에서는 자모회의외에 자모조직을 좀더 발전 시키기 위한 방법들을 찾게 되는데 그것이 소모임이 될 수 있다.

우선 소모임은 탁아소의 자모조직화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전체가 참여하는 것은 아니나 이를 통해 자모회를 강화한다는 목적성을 지녀야 한다. 적은 소수 인원이 모였을 때 쉽게 친밀감이 형성되며 그속에서 탁아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커지면서 자모회의 핵심활동인자로서 성장할 수 있게 된다. 교사는 소모임을 진행하면서 이러한 자모들을 발굴하여 이들의 변화를 주의깊게 관찰하고 적절하게 지도해 내야 한다. 또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모든 사회, 문화적 혜택에서 소외되어온 자모들의 숨겨진 자질을 계발하고 여성으로서 주체적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어쨌든 소모임은 자모회를 어떻게 강화, 발전 시킬 것인가에 목적을 두고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2. 사례

-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 소모임 -

1. 먹자계 (안산 진달래동산)

1) 취지: 신진자모나 소극적 자모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프로그램개발의 필요와 자모의 요구가 맞아 구성됨.

쉽게 참여하고 자모들 간에 유대형성을 가능케 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임

2) 진행: 월1회, 책임교사 1인, 가족당 1,000원 회비.

발기했던 자모 2인이 함께 진행하며 마지막주 토요일에는 비디오를 감상.

2~3회 진행 -토요일 오후:초기에는 모든 자모가 참여가능한 시간으로

-일요일 오후:비디오 감상과 함께 하게됨.

평균적으로 10여명의 자모가 참여함.

3)교사 역할 :참여자모 확인과 비디오 검토후 선정

4)자모역할 :자모간 연락과 참여 권유및 음식만들기

5)교사 평가 : 교사중심이 아닌 자모회 사업으로 자모들 책임하에 진행되도록, 2달에 1회로 비디오 감상과 함께 운영이 바람직하며 자모회에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2.반지계 (구로 구로놀이방)

1)배경:92년 1월 자모들이 자연스레 모인 자리에서 '계를 해보자'라는 의견이 나와서 2월부터 모였음.

비슷한 연배의 자모와 교사들 11인이 모여 월1회,15,000원씩 회비.

2)현재는 진행이 잘안되는 상태인데 이는 계를 통해서 모임의 구속력이나 동질성을 찾는 것이 아니고 그저 번호대로 순서가 되면 자모회장(계주)과 반지를 하러가는 식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임.

3)교사 평가 : '계'라는 형식을 빌어 소모임의 단초를 마련하려고 했던 의도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교사들의 준비정도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보며 빠른 시일내에 내용을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3.놀이계

1)구성:88년초 시작하여 월별 3,000원씩,1년 지속.1회실행.12인이 시작하여 10인이 실행참가,자모들만 대상

2)진행:실행이후 자모친화력 강화,자모들 잦은 교체로 지속하기 어려움. 이후 계는 해체되고 1년에 몇회 정도 교사들과 자모들끼리 터놓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자 야외놀이 진행.

3)교사들 참여 전혀 없이 친교부장과 자모들 중심으로.

4. 마을방 (구로 새터 어린이집)

1)목적: 한달의 1회인 자모회를 통해서 자모들의 생활상의 문제나 의식수준 등에 대해 이해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생활에 찌들어 사는 기혼여성들에게 삶의 활력을 주기위해서 주1회의 자유로운 모임을 만든다.

2)방법: 매주 월요일 저녁은 '마을방'으로 탁아소를 개방하여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2달반 10회 진행.교사가 미리 횟수와 내용을 선정.

3)프로그램은 1회 완결.

노래배우기,아이간식 만들기,부직포 인형 만들기,에어로빅(아리랑 처녀),한지공예,공동체 놀이,지점토 (4주)-외부 강사

4)평가:처음 1~2회때는 참여도 낮았으나 한번 참석해 본 자모는 프로그램이 재미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하여 이후 계속 늘어나 평균 10여명 참석

자모들이 중간에 참여하기 어렵다. 아이들 간식 만들기나 가게놀이등 함께 나누고,함께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은 무척 유익하나 한지공예나 지점토 등 개별적 작업에 의해 성과가 나타나는 것일 경우 자모들간에 결과물에 대해 경쟁심이 생기는 등 우려점이 있으며 목적의식적인 의도에 비하면 성과는 바람직하지 않게 나타난다. (물론 자모들 입장에서보면 자신이 만들었다는 성취감과 만족감은 크다.)

5.친목계

1)어머니대회 연극이후 연극참여 자모들이 3탁아소 공동으로 친목계 형성 ->이후 지역부녀 조직으로 전화 예상

2)경조사계 형태로 각 가정의 경조사가 있을 시 모아둔 기금 사용하고 회원들이 함께 경조사 있는 가정을 방문.

- 친목 이후 목적의식적 단계 -

1.독서토론회

1)배경:선진적 자모의 양성과 자모 관리방안의 목적으로 구성. 사전에 가정방문시 요구도 조사 했을 때 독서토론에 대한 요구도가 가장 많았고,교사회회의에서 필요성이 합의되어 91년초에 시작.

2)구성:자모3인결합,책임교사1인.

3)진행:월1회 독서토론및 비디오 감상,토론으로 진행

4)내용:

<1회모임> 소모임의 목적을 합의하고 커리에 대해 논의함

:생활속의 진리를 깨닫자. 노동자,여성으로서 자기가 처한 현실을 바로알고 개척의 희망을 함께 다진다.부담스럽지 않게 진행은 전 구성원의 합의를 통해 한다.

<2회 모임> 갈매기의꿈

:기본인식단계로써 현재의 삶과 이후 희망하는 보람된 삶,그 삶을 이루는 방안을 토론하였다.자모모두 목표한 바에 맞게 토론 잘됨.

<3회 모임> 우리가진것 비록 적어도외

:2회모임에서보다 구체적인 자기 삶과 그 삶을 엮매고 있는 사회적 조건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여성노동자로서,기혼으로서 삶을 조명)

여성으로서의 문제에 대해 자모들이 자기고민을 털어놓음. 단순불만이 주로이며 불만의 대상도 남성으로 국한됨. 그러나 교사와 함께 이야기 하는 과정에서 구조적인식과 자기문제를 종합적으로 관찰하도록 도움을 줌.

자모들은 한달에 책 한권 읽는게 부담이라는 반응이 있어 다음부터는 결월로 독서토론회와 비디오 감상,토론으로 바꾸기로 재조정.

<4회 모임> 모던타임즈 비디오 감상

먹자게 자모들과 함께 진행하였으며 현대 산업사회문제와 그속에서 노동자로서 자기위상을 보자. 토론은 잘안되었는데 영화를 이해하기가 어려웠기때문,약간의 인식이 있는 자모중심으로 토론이 진행됨.

<5회모임>단지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감상

탁아법 투쟁시기로서 선진자모가 바빠지면서 소모임 굴리기 힘들어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도 참여가능한 비디오 감상으로 대체됨.

5) 교사평가: 소모임위상과 내용이 명확치 않고 그 시기 (법투쟁시기)쟁점사안이나 탁아라는 고유영역과 접합되지 못하여 지속성 어려웠다.

92년도 목적은 자모회라는 탁아운동조직강화에 복무하는 소모임으로 그안에서 선진자모관리방안으로 위상잡으며, 자모요구도 재조사작업실시하여 92년 4월부터 다시 시작 예정.

2.새싹회 (구로 새싹놀이방)

1)배경: 탁아소 지역에 오랫동안 살고 있던 교사가 지역조직을 고민하면서 성향이 괜찮고 아빠들도 잘 도와주는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친분관계를 유지,초기에는 친목위주로 진행했으나 잘 안되었습.

2)진행:탁아소 이전문제가 제기되면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려고 하자 자모들측에서 탁아소의 필요성에 대해 호소하고 대책위를 꾸림(10인정도) 대책위를 꾸려 논의하던 결과 탁아소 장소마련을 위해 500만원 끈것에 대해 이자를 자모들이 책임지겠다고 함. 그러면서 교사의 제안으로 졸업생 자모모임인 '새싹회'가 구성됨.

3)방식: 집안 관혼상제 중심으로 서로 찾아가보는 식으로함.돌아가면서 살아온 이야기등도 하면서 진행시킴.지금까지 5번 모임.

4)전망:탁아소 재정문제의 극복을 새싹회와 함께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중 경제지원팀으로 꾸릴 예정임 (예,화장품 가게 운영 등)

3.소식지 모임 (구로 새터어린이집)

1)취지: 자모들이 소식지제작에 주체적으로 참여해 소식지에 자모들의 힘과 정성이 실리게 하고 모임을 통해 자모들의 의식을 고양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삼는다.

2)구성:편집부장(자모)+편집위원 2인(자모) +자원활동가 (1~2명)+교사 (2명)

3)진행:편집부장은 매 소식지 모임때마다 바뀌지 않고 고정적이지만 편집위원과 자원활동가는 매회마다 교체된다. 소식지는 3달에 1번씩 발행되는데 '기획-원고청탁-원고수거-교정-편집-평가'의 일련의 과정을 위 구성원들이 모두 맡아서 한다. 3달사이에 약 5회정도 모임을 하는데 소식지제작작업 뿐만 아니라 타 탁아소 소식지를 읽고 이야기하든가,소주제를 놓고 함께 토론하는 자리도 함께 만든다. 교사가 전담하여 만들었을때보다 자모들 반응 좋음. 2년정도 지속.

올해는 질을 높여 주제를토론 가능할 수 있도록 (5회중 1~2회정도)

3)평가:법 투쟁하면서 일상적 소모임으로 활성화 되지 못함

4.배움터 ->어머니 교실 (구로지역)

1)지역주민에 개방

2)여러 강좌중 몇 가지 주제를 탁아소 교사가 전담.

3)1년에 2번씩 정기적으로

4)올해는 자녀교육반 신설

5)기획팀에서 목적의식성 가지고 기획 (탁아소 교사 2인 결함)

5.자부 소모임

1)친목단계형태, 탁아소 운영에 관한 내용

2) 교사 부담 크다. 중심인물 1인이 결함되면서 가능(탁아소 시설물 보수, 대청소 등)

6.졸업생 자모모임 (구로 튼튼이 놀이방)

1)취지:졸업이나 개인적 사정으로 탁아소를 그만두게 되는 경우 탁아소와의 연결고리가 필요함을 느끼고 선진인자와의 지속적인 접촉과 졸업자모들의 탁아소 참여를 위해 추진.

2)방식:자모들의 자발적 추진이 바람직해 자모들에게 개별적으로 이야기하고 자모들이 연락을 해 첫모임을 했으나 첫모임에 1/3만이 참여하였다.

계속만나는 것보다 좀 더 시일을 두고 원할 때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나와 유보중임 (올해안에 다시 구성할 계획임)

3)추진이 원활하지 않았던 이유:졸업생 자모구성원 중 서로 인간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 모임 연락을 제대로 하지 않고 졸업 모임을 단순한 친목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교사와의 모임을 부담스러워 하는 경우도 있었다.

4)평가:사전준비의 불철저함과 자모들간의 친밀도에 신경을 써서 스스로 하고 싶은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3.각 소모임 사례 평가

-소모임은 우선 부담이 없고 재미있어 자모들의 자발성을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

1)계모임의 형태 (반지계, 먹자계등)

①부담감이 없고 재미있으며 친목도모에 기여하고 있다. 여기서 먹자계등은

신진자모를 추동하는데 용이하다.

②자모들 자치로만 맡겨둘때 방향성이 오도될 가능성이 있다.

③계모임 다음단계에 대한 교사의 목적의식적인 노력과 지도가 필요하다.

2)새싹회, 독서토론회, 소식지모임, 배움터(학습 위주)

①자모회 활성화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

②시기, 단계에 따라 내용이 다르다.

3)마을방 (한지 공예등)

①공예방등을 운영할 때 완성품에 대한 자기만족은 있으나 개인주의로 흐를 위험을 다분히 안고 있다.

4. 소모임 구성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①소모임시 목적에 따른 합의와 교사간의 교류가 필요하다.

②다른 일상활동과 겹치게 될때 소모임이 올바른 내용을 가지고 진행되기가 어려우므로 교사들의 올바른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 하며 공동의 책임속에서 공동으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교사회의 활성화 필수)

③소모임시에 모임의 단계와 목적이 상황과 적합해야 한다.

④자모들과의 소모임시 이에 대한 교사들의 철저한 준비가 소모임의 성공여부를 판가름한다.

⑤내용을 심도있게 준비하기에는 일상의 책임이 너무 과중하다.

⑥교사의 경험의 한계로 지도의 어려움이 있다.

⑦교사비참여시 소모임 관리방식에 어려움이 따름.교사1인정도는 반드시 모임에 참여

⑧소모임의 새로운 프로그램 구상시 재정과 인력의 문제가 발생한다.

⑨너무 구태의연한 프로그램에 의존하지 말고 가정생활이나 부부생활등에 새로운 가치관을 부여하며 되돌아 볼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의 개발도 필요하다.

⑩자모들의 의식과 조건을 충분히 고려한 프로그램 필요.

5. 후속작업

초기단계 (연초에 신진자모가 많이 들어오는 시기)에 친목모임을 위주로 소

모임을 진행시키고 하반기에 상반기 활동으로 걸려진 자모들 대상으로 취미나 학습 소모임 형태로 발전시킨다. 이후 선진적인 자모들을 발굴하면 교사의 개별 관리와 지역내 대중조직으로의 인입등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한다.

지역내 단체나 강좌등을 활용하는 문제는 공동프로그램을 만들어 탁아소 자모를 대상으로 할수 있는 내용을 만들어 탁아소 교사가 책임성을 갖고 적극적으로 공동활동을 한다.

지탁연 가족여러분의 글을 기다립니다 !!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에 바라는 것, 지탁연가족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함께 가는 길"을 읽고 느끼신 점, 제안이나 격려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탁아소 별곡'에 실을 탁아소내에서 일어나는 아이와 아이들끼리의 사건(?), 아이와 선생님과의 대화, 부모와 함께 나눈 사연들을 보내주세요.

각 지역의 자잘한 소식을 기다립니다. 소식지를 통해 전국의 지역소식, 개별탁아소 소식들을 원활히 교류하기 위해서 지역통신원들은 물론이거니와 자신이 몸담고 있는 지역내에서 일어난 행사와 일, 에피소드등을 전국의 교사에게 알려주세요.

소식지에 실을 사진을 공모합니다.

각 지역에서는 주요활동을 나타내는 사진, 좋은 내용이 담긴 사진을 보내주세요. 매달 소식지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탁연 탁아교사 설문조사 분석결과

I. 들어가는 글.- 조사의 목적과 방법

1. 목적

지탁연은 1992년을 내부조직력의 강화의 해로 삼고 다가 올 93년 개정가시화를 목표로 활발한 활동을 벌이기 위해 그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우선적으로 지탁연 소속 탁아소를 이용하는 가구의 소득및 주거상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용자가구에 대한 실태조사 분석내용을 기초로 하여 지난 4월 보사부에 제안서를 올린바 있다.

더불어 소속 탁아소의 실태와 탁아교사에 대한 상황및 의식을 파악하기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글은 그중에서 탁아교사에 대한 실태조사의 분석내용만을 다루기로 하며, 탁아교사의 의식과 상황을 알아보는 설문조사를 통해 지탁연 조직의 역량을 파악하고 취약점을 보완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2. 조사방법

1) 조사대상자: 지탁연 소속 탁아소에서 활동하는 교사 191명

2) 지역 : 서울, 경인, 지방 17개 지역위원회

3) 조사방법: 설문지를 통한 전수 조사

4)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빈도분포와 백분율을 토대로 집계하였다.

II. 실태조사 분석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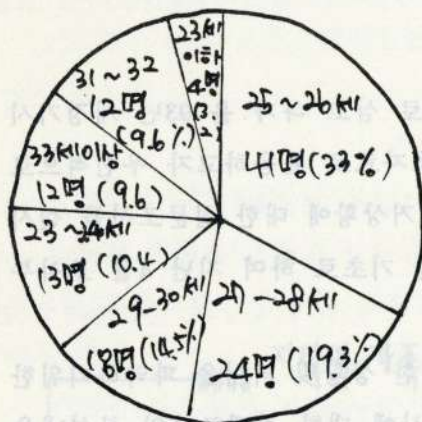
1) 교사상황

1. 탁아교사의 연령과 활동경력은 <표 1>, <표 2>와 같다. 이와 같이 탁아경

1) 본호에 실린 내용은 분석결과를 요약한 것으로 설문조사의 전 내용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력 1년~3년 사이의 교사가 전체의 87%를 차지하는 것은 민간 비영리탁아소가 80년대중반부터 활발히 생겨난 점을 감안하더라도 탁아교사의 수명이 매우 짧음을 그대로 반영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탁아활동의 밝은 전망은 탁아교사들이 자주 교체되지 않고 인간관계, 사업 결과물이 축적되어 계승, 발전 될때만이 가능한 것이라 볼때, 탁아교사들의 짧은 수명의 원인을 밝혀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것이다.

<표 1>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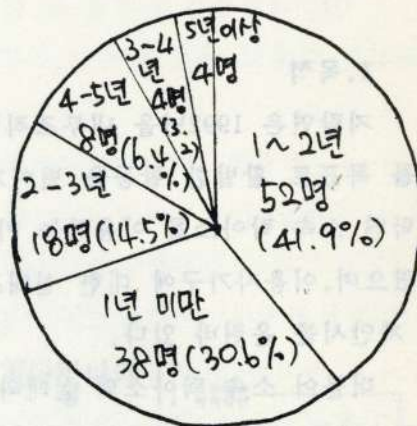
2. 탁아소자원활동 경험에 대하여 전체의 45.9%가 경험해보지 않고 직접 탁아활동을 시작했다고, 45.8%가 자원활동경험을 해보았다고 응답하였다.

자원활동의 경험을 했더라도 6개월미만이 전체의 30.6%로 나타나 탁아교사가 되는 과정속에서 탁아활동에 대한 올바른 사전인식과 교육을 위해 자원활동이나 견습기간을 의무적으로 설정하는 등 제도적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것이다.

3. 교사의 학력은 4년제 대학졸업자가 전체의 50.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고졸이 20.9%, 전문대 졸업이 16.9%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졸업자가 전체교사의 67.7%의 비교적 높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고, 이는 최근들어 탁아입법 과정 등에서 민간 탁아소 교사들의 자격과 전문성을 합법적으로 요구하는 흐름에 부응하는 것이라 해석해 볼 수 있다. 또한 학생시절 활동속

<표 2>



<경력>

에서 탁아운동을 자신의 전망으로 설정하고 활동에 투신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유아교육에 관한 강거나 강의를 받은 경험에 대하여 질문해 본 결과 전체의 66.9%가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교육의 형식에 대하여 살펴보니 탁아교사의 32.2%가 탁아모 교육을 받았고, 19.3%가 유아교육을 전공, 12%가 비정기적인 유아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 실제 유아교육 전공자는 많은 편이 못되었으나, 비록 전공하지 않았더라도 탁아모 교육을 받는 교사까지 한다면 과반수를 넘고 있다.

하지만 전체교사의 71.7%가 앞으로 유아교육을 받을 계획이나 희망을 갖고 있는 점을 볼때, 탁아현장에서 교육의 탁아입법이 추진된 현실에서 정부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책에 따라 다양하고 풍부한 교육여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즉, 탁아모교육을 받거나 (19명, 15.4%) 유아교육강좌에 적극 참여하는 방식 (55명, 15.4%)에서부터 유아교육을 전공하겠다는 교사도 6.4%(8명)있었다.

탁아모교육을 지탁연을 비롯한 민간 교육기관에 위탁하고 유아교육강좌 또한 민간, 공립차원에서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당국에서는 연구및 재정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다.

5. 탁아활동전에 했었던일에 대하여. (주관식, 단위는 명)

학생(졸업후 바로 활동시작) (33)

타운동단체관련(32명)-종교 (5), 운동단체(11)노동현장에 있거나 노동운동(16)

사무직(학원강사, 공무원, 자영업, 병원근무)(27)

보육사업관련 (유치원, 탁아소, 공부방, 고아원, 직장탁아소, 장애인시설등) (20)

생산직(10), 주부(1), 무응답(5)

다음으로 탁아교사의 혼인사황을 조사해보면, 응답자중 미혼이 72.5%, 기혼이 25.8%로 활동력이 강한 미혼여성이 훨씬 많음을 알 수있다. 이는 탁아활동이 장시간, 저임금 그리고 높은 강도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아직도 기혼여성이, 특히 자녀를 가진 여성이 결혼전과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 힘든 조건임을 나타내 주는 것이라 하겠다.

기혼여성의 경우, 1명의 자녀를 가진 교사가 74.5%, 2명을 가진교사가 1.6%

2명 이상을 가진 교사가 1.6%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녀를 가진 기혼여성이 미혼여성의 동등한 조건과 입장에서 원활한 탁아활동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미혼 기혼여성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전제하에 활동조건, 원칙에 대하여 합의를 보고, 서로가 가진 장점과 긍정성을 최대한 활동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기혼여성이 활동하는데 있어 장애요소(탁아문제, 육아비용등)를 조직적으로 대처하여 해결하는 구조를 정착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6. 탁아교사들이 탁아활동을 처음 시작 할 때 탁아에 대해 어떠한 관심에서 출발하였는가를 물어보았다.

전체교사의 47.5%가 운동적 차원이라 대답하여 탁아운동의 목표를 확실히 인식하고 시작한 사람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었고 탁아의 필요성을 절박하게 느껴서가 26.6%, 봉사차원에서가 18.5%, 아이들과 함께 있고 싶어서가 16.9%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봉사정신과 아이들에 대한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시작한 사람이 35.3%나 되어 이들의 열정으로 탁아운동의 구체적 목표를 인식하고 활동할 때 커다란 원동력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전공과의 연관으로 관심을 갖고 출발한 교사는 전체의 8.8%에 불과하고, 이는 앞에서 전공자가 19.3%라는 응답의 반 정도밖에 안되어 현 유아교육전공자들의 현주소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즉 유아교육의 전공자들은 탁아소의 전문성 확보와 발전을 위해 탁아소활동에 대한 관심과 고민이 이루어져야 하며, 탁아교사 인력의 재생산 통로를 확보하고자하는 우리측의 조직적 대안과 그에 따른 구체적 계획이 필요하다.

7. 지탁연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주관식, 명)

소속 탁아소를 통해 (63)

주변의 친지, 선배, 동료들 통해 (15)

학교내에서 (15)-도시빈민 활동을 통해 (1), 자원활동을 통해 (11), 학생운동을 통해 (3)

타단체를 통해 (10)

교육강좌를 통해 (7)-지탁연내 (6), 타단체 (1)

신문, 매체, 행사등을 통해 (5)

아이를 키우면서 (자모로 출발) (3)

자격증(전공)관련하여 (1)

본인이 직접 찾아가면서 (1)

무응답(4)

또한 알게된 년도는 90년도가 11명, 91년도가 9명, 89년도가 7명, 88년이 6명, 87년도가 3명으로 나타났다.

8. 앞으로 탁아활동을 계속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전체 교사의 81.4%가 "할 수 있는 한 계속 하겠다." 라고 대답함으로써 탁아운동의 밝은 전망을 시사해 주고 있다.

반면, "잘 모르겠다"의 응답자가 11.2%, "가능한한 그만 두겠다"가 4%, "다른 직장이 생기면 그만 두겠다."가 1.6%로 나타남으로써 탁아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무엇인지 다시금 고민을 던지게 하고 있다.

그 이유를 다시 살펴보니 경제적인 이유와 장시간 근무조건이 각각 전체교사의 25%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고, 일에 대한 전망을 찾지 못해서가 12.5%, 교사간의 갈등이 6.2%, 건강이 좋지 못해서가 2.5%등으로 나타났다.

이를 볼때, 탁아활동이 종일 탁아로서 장시간(11~12시간)과중한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저임금으로 생활의 기본권마저 충족되지 못한 채, 일하고 있는 탁아교사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 하겠다.

이는 현재 우리가 정부당국, 시, 구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원싸움에 박차를 가함과 자원활동가, 탁아교사인력의 확충을 통해 해결될 수 있으리라 본다.

2) 교사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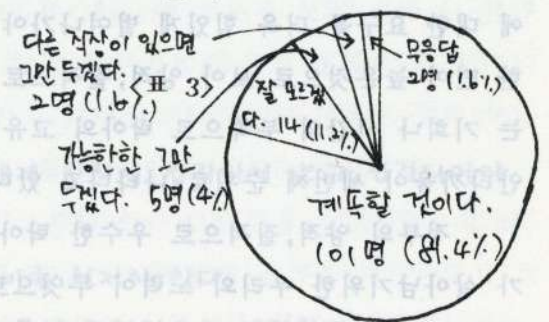
<표 3>

1. 연봉의 소속 교사들의 인건비는

16~20 만원이 44.3%로 가장 많았다.

<표 3>

이것은 지탁연의 사업중 가장 취약한 면이 교사복지 부분이라는 것을 극명하게 나타내고 있으며 거의 모든 지역의 노동조건이나 상황은 비슷하면서



인건비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회원탁아소 개별적으로 독자적인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2. 인건비 만족도에 대하여

이 문항에서는 70.9%가 '매우 불만'과 '불만스럽다'고 부정적인 응답을 했으며 만족스럽다 9.6%, 적당하다 8%로의 순으로 나타났다.

같은 액수로도 불만과 적당하다고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때 교사들의 임금관의 차이에 따라 응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인건비를 교사들의 단순한 활동비로 파악하느냐 아니면 생계비 포함의 인건비 개념이냐에 따라 차이를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무응답까지 포함해서 20 %가 긍정적 대답을 한것으로 미루어 인건비가 20만원선에도 불구하고 강한 활동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해석 할 수 있다. (무응답자중에서 탁아활동상 일하는 것에 대한 적정한 인건비 책정은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3. 인건비 출처에 대한 질문에 72.5%가 탁아비+후원회비라고 응답했다.

탁아비에서만 18.5%, 후원회비에서만 4.8%로 나타나고 있고 기타 다른 형태가 2.4%이다.

우리 비영리 민간탁아소의 운영상 보육료만으로는 인건비까지 지급할 상황이 못된다. 따라서 후원회비에서 함께 지출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앞으로 보다 발전적인 인건비 출처 형태는 정부보조+보육료+후원회비가 되어야 보육료인상을 통한 인건비인상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지원에서 교사들의 인건비를 담보하는 것이 바람직한 형태가 될 것이다.

4. 비영리로 운영되는 탁아소는 98.3%이며 비영리 운영상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것은 <표 3>과 같다. 시설확장및 보수를 가장 우선적으로 꼽은 (66.5%)것을 볼때 현재 진행중인 지원투쟁의 내용과 맞아떨어지면서 앞으로는 시설확장,보수에 대한 요구를 더욱 힘있게 벌여나가야 한다. 교사수의 증가보다 유아교육에 대한 면이 높은것으로 보아 양적, 질적으로 교사들이 교육적 내용을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나 시간의 부족으로 탁아의 고유한 임무인 교육적 내용을 담보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세번째 순위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양적, 질적으로 우수한 탁아서비스 공세에 우리 비영리 민간 탁아소가 살아남기위한 우리의 노력이 무엇으로 집중되어야 하는 것인가가 아주 잘 나타나고 있는 응답이었다.

3)교사 활동

1. 현재 교사회의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물어보았다.

93.5%의 응답자가 교사회의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대부분은 주1회 교사회의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월1회 하고 있는 경우도 10.4%, 정기적으로 하고 있지않은 경우도 5.6%가 있는 것으로 보아 아직까지 교사회의가 완전히 정착되지 못했다고 볼 수 있겠다.

또한 교사회의의 주요안건은 운영관리논의, 행사준비, 또는 평가, 아동상황점검, 교사의 역할 분담, 교육안 작성및 평가, 학습세미나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상황점검이나 교사간의 친목도모는 별도로 시간을 내어 하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뒷전으로 밀려나 있었다. 부모의 상황은 교사들이 모두 공유하고 상황에 맞게 대응할 수 있기 위해, 또한 교사들이 원활한 관계속에서 활동하기 위해 필히 다루어져야 할 내용이라고 본다. 교사회의때 다루어야 할 내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낮잠 시간을 이용함으로써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고 있고 저녁시간과 병행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부족한 현실이다. 그러므로 매주하는 교사회의는 일상적으로 탁아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내용을 점검하고 그외 월 1~2회의 MT나 학습모임을 통해 아동상황이나 부모상황을 점검함은 물론 장시간 함께 일하는 교사들간의 친목과 유대강화를 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교사간의 생활수칙은 '있다'가 41.9%, '없다'가 44.3%인데, 무응답자 13.8%를 포함하면 58.1%가 되어, 아직은 생활수칙이 없는 곳이 많았다. 물론 교사들간에 잠정적으로 합의된 내용들이 있긴 하겠지만 보다 조직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명문화된 생활 수칙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생활 수칙과 내규의 개념에 대한 혼돈으로 실제 명문화된 생활 수칙을 지니고 있는 경우보다 더 많은 응답이 나왔다. 실제 생활수칙을 두고 있는 탁아소의 예를 살펴보자.

햇살 어린이집 내규 및 생활 수칙

*** 내규***

1)햇살 어린이집의 모든 사업은 공개제 원칙에 입각하여 보고, 전검되어야 한다.

2)시간업무 및 각자의 역할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한다.

3)공적, 사적인 모든 문제는 교사회의 통해 조직적으로 해결한다.

4)자비, 상비를 구조하 한다.

5)교사회의의 정례화로 사업공유를 원함하 한다.

6)부모나, 인턴위, 공부방, 대위관계시 사건을 배제하고 교사회의에서 함의된 공식 입장을 견지한다.

7)함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준수하고 공동책임을 진다.

8)개인에 대한 사업집중을 먹고 적절한 역할분담이 되도록 한다.

***위의 규율을 따르지 않을 시는 교사회의를 통해 적절한 벌칙을 내린다.

*** 생활수칙 ***

1)출근시간을 잘 지키자.

2)경근, 지각, 조퇴를 가능한 삼가하고 필요시 휴가를 이용한다.

3)업무시간중 사적인 일을 보지 않는다.

4)외부활동에 따른 퇴출은 그 주 교사회의때 동의를 얻는다.

5)아동이나, 부모 등에게 언어사용을 유의하자.

6)사적인 기분으로 근무에 입하지 말자.

7)그날 일을 마무리하고 잡무는 돌아가면서 한다.

8)사용한 물건은 꼭 제자리에 놓는다.

9)교사회의는 주1회 꼭 참석하여야 한다.

10)일일 생활 기록부를 꼭 작성하고 보고, 점검한다.

11)아동교육안을 공동으로 작성하고 교사회의시 꼭 평가한다.

3. 교사간의 역할분담이 되어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88.7%가 '되어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되어있지 않다'고 응답한 7.2%와 무응답자4.1%를 합한 11.3%는 결코 무시될 수 없는 부분이며, 아직도 주먹구구식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보다 효율적인 활동을 위해 시급히 역할 분담이 되어야 할 것이다.

4. 교사들중 대부분인 82.2%가 출.퇴근 하고 있으며 14.5%가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퇴근 교사와 상주교사간의 업무 역할 분담이 잘 되지 않음으로써 교사간의 불만을 초래 할 수 있다.

이는 교사 모두 탁아소가 공적인 장소라는 인식아래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이야기 함으로써 이해와 배려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상주교사는 공.사를 확실히 구분하여 사생활의 연장이 되지 않도록 하고 출.퇴근 교사는 상주교사를 배려하여 공동으로 일을 책임지고 마무리 하는 자세를 가진다면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5. 교사들의 근무시간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근무시간은 10~11시간이 43.5%로 가장 많았으며, 8시간 이하인 경우는 단 2명뿐이었다. 8~9시간 근무가 32.2%, 12시간이상 근무가 20.1%로 지역모임이나 단위별 회의, 가정방문등을 감안 할 때 장시간 근무로 인해 지쳐있는 모습이 당연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주 5일 근무를 하는 교사는 전체 응답자의 33%로,아직도 많은 곳이 주 6일 근무에 행사가 있는 경우에는 일요일 까지 근무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열악한 근무조건속에서 탁아교사의 구멍이 길어지기 힘든 이유중의 한가지를 발견하게 된다. 결국 근무조건에 대해서는 교사들 스스로 개선을 위한 심도깊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6. 교사간 갈등상황 해결방법 (주관식. 명)

개별접촉(친목혹은 대화를 통해 (51명)

공식적인 교사회의 (46)

혼자 고민하고 해결하거나 삭힌다.(10)

그때그때 솔직하게 해결(5)

단합대회를 통해 (2)

현재까지 별문제 없다(2)

여러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1)

7. 탁아교사 일지를 쓰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아본 결과, 쓴다고 응답한 교사가 69.3%,쓰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교사가 25%로 쓰지 않는 경우도 상당수 있었다. 모두가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일지의 내용은 금전 출납부, 아동관찰일지, 부모회일지, 매일 기록 일지, 자원봉사자 일지의 순으로 나타났고, 가정방문일지나 자모면담 일지는 몇몇 곳에서만 작성하고 있었다.

특히 가정방문,자모면담 일지는 교사간의 공유나 다음번의 가정방문시나 자모면담시 참조할 수 있도록 기록하는 습관을 길러야 하겠다.

8. 교사들의 자모 등과의 친교정도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 '매우친하

다'가 4.8%, '친한 편이다,'가 34.6%로 40%만이 친하다고 응답했으며 '개인에 따라 다르다'가 44.3%로 가장 많았다. 탁아활동이 대중활동임을 상기할 때, 목적의식적으로 자모모두와 친분관계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 또한 '잘 모르겠다'도 12.9%로 나타난 것을 볼 때 아직은 자모들과의 관계가 원활하다고 보기 힘들며, 이는 교사·자모간의 신뢰 형성을 위해 빠른 시일안에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할 것이다.

친교를 맺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니, '아동상담을 통한 적극적인 대화시도'가 44.8%로 가장 많았는데, 이를 볼 때 아동을 올바르게 교육함으로써 신뢰를 쌓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할 일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고민상담과 같은 개인적인 친목도모가 27.9%, 소모임을 통해서가 7.7%, 정기적인 가정방문이 14.2%로 나타나 자모들과 개별적인 접촉이나 소모임등 다양한 사업등을 통해 적극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수록 자모들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4) 교사 재교육

1. 다음은 탁아교사의 재교육이 필요한가에 대하여 질문해 보았다. 그결과 그렇다고 대답한 교사가 전체응답자의 97.5%로 거의 모두가 재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교사교육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더니 유아교육을 전공한 교사가 부족한 현실을 반영하여 유아교육에 대한 요구가 가장 강했고, 탁아문제 해결을 위해 기본토대가 되는 여성문제, 빈민·노동문제등 사회과학적 인식을 위한 교육에 대한 요구도 많이 나타났다. 그밖에 풍물·탈춤·민요등 문화교육에 대한 요구도 상당수 있었다.

3. 실제로 68.5%의 탁아교사들이 위의 내용을 지닌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었고 그 교육통로로는 타 단체를 통해서가 43.5%, 개인적인 학습이 25%, 탁아소내 세미나를 통해서가 22.5%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를 볼때 '교육은 곧 조직이다'라는 면에서 우리자체내에서 해내야 될 교육을 타단체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은 부끄러운 일이며 내부에서 교육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구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4. 탁아교사의 31.4%가 앞으로는 이러한 교육이 지탁연의 구조를 통해 해결되었으면 좋겠다고 응답하였고, 22.5%가 지역모임을 통해, 12.9%가 탁아소내 세

미나를 통해 해결되었으면 좋겠다고 응답한 것을 볼때 탁아교사들의 교육에 대한 강한 요구를 중앙과 각 지역에서 적절히 안배하여 해결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5. 다음으로 지탁연의 각부서와 조직체계및 제반 활동에 대해 어느정도 알고 있는 가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 전체응답자의 93.5%가 '대강 알고 있다'라고 대답함으로써 단결과 소속감을 전제로 할 때만이 올바른 탁아활동이 가능한 우리의 현실앞에 자못 충격을 주었다. 이를 반성하면서 우리는 각 조직원들이 연합회를 올바르게 인식하기위한 상호전달체계를 원활히 하고, 소속감 강화를 위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겠다.

6. 지탁연에 바라는 점.(주관식.명)

- 지탁연 간부의 지역방문 정례화등의 방법을 통하여 각 지역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긴밀한 연결 관계를 지녀야 한다. (16)
- 교사재교육을 위한 정세, 신속한 정보교류에 관한 지속적인 정보지 발송, 배포(11)
- 탁아운동론의 고민과 정립 (8)
- 탁아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해서 지탁연의 정당성 확보 (8)
- (영유아 교육연구 (특히 영아 교사모임 추진등)
- 지방 지대의에 대한 강화와 지방 탁아소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 요구(6)
- 활동조건,수준이 열악한 지역의 지원을 통한 각 지역위의 강화 (5)
- 자모조직,자원활동가 조직강화를 위한 자료개발 (5)
- 올바른 조직관,활동가론 조직원으로서의 자세 확립 (사업기풍 확립)(5)
- 올바른 탁아정책,탁아소 모형연구를 통하여 민간탁아소와의 연대강화(2)
- 사회적으로 "탁아문제"에 관한 여론 확산 작업,활발한 홍보 활동(2)
- 연합회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 자체내 내규,수칙 강화하고 지도와 전달체계를 확립(2)
- 야유회,등산등 조직원 친목강화 활동(2)
- 교사처우개선을 위한 활동 (1)
- 각 분과 활동의 활성화를 통한 분과사업별 사례를 상호 교류 (1)
- 탁아입법 쟁취투쟁의 가속화 (1)
- 연합회 제정,인력 확충을 위한 방안 마련 (1)

교사가 쓴 동화

까치와 까마귀

김난희 (전주 일터어린이집 교사)

(3)

풀빛까치의 눈흘김을 눈치 채고 있는 큰부리까마귀는 눈흘김을 태연하게 받아들이면서 총총거리고 있는 노란때까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큰부리까마귀야, 어딜 다녀오느라고 그렇게 흠뻑 젖었니? 가만 있어봐. 너 울었니? 눈이 왜 그래?”

“으응. 하늘 높이 날아갔다 왔어. 물난리가 난 이유를 알아봤어.”

“아니, 이 물난리의 이유를 알아왔단 말야?”

노란때까치와 풀빛까치는 놀라워서 토끼눈처럼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말해봐. 왜 비가 오는지. 빨리.”

“그런 말이야, 견우와 직녀가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어서 하염없이 울고 있기 때문이다. 그 눈물이 비가 되어 내리고 있어.”

췌기꼬리영감님은 큰부리까마귀의 이야기를 지긋이 눈감아 듣고 노란때까치와 풀빛까치는 턱을 끄덕입니다. 그러나 김대감님 마을 까마귀는 여전히 표정없는 얼굴로 내일이 아니라는 듯 시큰둥해 합니다. 큰부리까마귀는 이야기를 마치고 마을을 바라봅니다. 김대감님 마을의 곳간에도 붉은 흙탕물이 지나가 쌀 한 톨, 보리 한 톨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 자라지 못한 수박이 떨어졌다 뒤집어졌다 하면서 물살에 뒤섞이고 켜신, 책, 옷가지 모두가 떠내려갑니다.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비가와서 우리가 힘든 것도 중요하지만 견우와 직녀가 불쌍해서 못 봐주겠어. 계속 울고만 있던 말야. 나도 막 따라 울었어.”

검은 빛깔 부리로 이야기합니다.

“글쎄, 정말 어떻게 하면 이 비를 그치게 할 수 있을까?”

젓빛 눈망울을 깜박이면서 노란때까치가 이야기해요.

“나와는 상관 없는 일이야. 비가 계속 오든 말든 나는 먹을 게 있어서 아직

은 살만해.”

자주빛 광택을 더욱 빛내며 뽀내듯 김대감님 마을 까마귀가 이야기 했습니다. 김대감님 마을 까마귀의 이야기가 끝나자 췌기꼬리영감님께서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견우와 직녀가 만나지 못해 울고있으니까 만나게 해줘야지.”

“그럼 어떻게 해야 만날 수 있는 거죠?”

큰부리까마귀가 묻습니다.

“글쎄... ..”

췌기꼬리영감님께서 긴 한숨을 몰아쉬더니 가만히 눈을 감습니다.

나무들은 뿌리채 뽑혀나가고 논과 밭도 물속에 잠깁니다. 오이며 참외, 호박 따위가 모두 물에 떠다닙니다. 옆으로 길게누운 버드나무가 물살에 움직이면서 옆으로, 또는 반듯이 내려갑니다. 긴 버드나무가 옆으로 누워 떠내려가는 것을 보고 큰부리까마귀가,

“맞아! 다리야, 다리. 다리를 만드는 거야!”

눈을 반짝이면서 흥분된 목소리로 이야기 했습니다.

“큰부리까마귀야. 말 좀 자세하게 해봐. 무슨 다리야?”

노란때까치가 급하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다리를 어떻게 만들자는 거야?”

김대감님 마을 까마귀는 빈정거려요.

“견우와 직녀 사이에 있는 길다란 은하수 위로 우리가 다리를 만드는 거야. 견우와 직녀는 우리가 놓은 다리에서 만나는 거지.”

“무엇으로 다리를 만들자는 거야?”

이번에는 풀빛까치가 물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의 몸이야. 우리가 몸을 엮어가면서 만드는 거야.”

큰부리까마귀가 가슴 윗부분의 버드나무잎 모양의 깃털을 추켜세우며 대답했습니다.

“너희 까마귀들과 같이?”

풀빛까치가 확인하듯이 물었습니다.

(다음호에 계속)

'92 지탁연 하계수련대회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이하 지탁연)는 7월 30일 ~8월1일, 2박3일간 전국의 70여개 탁아소 교사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 카톨릭농민회관에서 92년 하계수련대회를 가졌다.

개사곡과 울동(?), 열띤 구호로 가득한 지역소개시간과 함께 서울에서 내려와 여러 가족들앞에 나선 변미양 선생과 눈물어린 인사를 나누었다. 이어 "활동가의 품성과 자세"라는 주제아래 마련된 권낙기 선생의 강연을 통해 동지애가 활동을 해나가는데 있어 가장 큰 힘이 됨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했다. 이어 연평별로 15개조로 나뉘어 탁아활동속에서 나타나는 난관과 장애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둘째날은 대통령선거 정국을 앞둔 정세에 대한 분석과 민족민주진영의 대선 방침에 대한 강연에 이어 "하반기정세와 우리의 과제"란 자체발제와 토론시간을 가졌다. 탁아활동가의 정세감각의 고양과 탁아법 투쟁속에서 쟁점 자모대중의 반민자의식을 민주대개혁과 민주정부수립투쟁으로 높여나가고, 탁아운동의 세력확대및 정세활용을 통해 개정투쟁의 입지를 넓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점들이 논의되었다. 또한 독일에서 오신 노명려씨의 "육아의 사회화" 강연과 탁아정책연구부의 "외국의 탁아제도 비교" 강연이 있었다. 저녁식사후 공동체놀이시간에는 지탁연에 대해 알아보는 조직알기 퀴즈, 자모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간단한 놀이와 공동체놀이속에서 지탁연 가족이 하나되는 자리가 되었다. 마지막날은 전회원의 단합을 위한 계룡산 등반대회가 열렸다. 남매탑 앞에서 진행된 결의식은 지탁연 가족들의 재치와 결의가 빛나는 자리였으며 등반하면서 준비한 돌맹이로 돌탑을 쌓고 최현숙 회장이 지탁연 깃발을 꽂아 우리의 결의를 높이 높이 휘날리는 가운데 한사람씩 인사를 나누고 동계수련대회에서 다시 만나기를 기약하며 전 회원은 하산하였다. 이번 수련회는 아동교육분과의 교재교구전시회 등을 비롯하여 각 분과별로 내용을 충실하게 준비하여 매 프로그램이 짜임새있게 진행되었으며, 그 어느해 보다 지탁연조직력과 동지애를 진하게 느낄 수 있는 자리였다는 평가이다.

일하며 키우며

해뜨는 동산 위 양자

아이들과 생활하면서 일어났던 재미있는 에피소드, 부모님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작지만 감동적인 사연들을 신는 난으로 '탁아소 별곡'이 마련되었습니다. 탁아교사로서 느끼는 어려움과 즐거움이 듬뿍 실릴 '탁아소 별곡'에 적극적인 투고와 열렬한 지지 바랍니다. <편집부 주>

이따금씩 "결혼은 언제 할거예요?"라는 질문을 받곤 한다. 그럴 때마다 "물론 해야지요. 중매 좀 부탁합니다."라며 웃어 넘긴다.

이제 막 신혼인 친구에게 "애는 낳아야지?"하고 물으면 "키울 자신이 없어서 안낳고 싶어."라고 말한다. 그런 때마다 "니가 키우냐, 애가 크는 거지."하고 면박을 준다. 그런 나는 남들의 상상을 초월해서 아들이 둘이나 "엄마, 엄마"하는 애엄마다. 이 사실은 탁아소 교사들 중에서 기혼자가 25%, 결혼을 목전에 두고 고민하는 처녀가 75%라는 현실앞에서 시사점이 많기 때문에 단순한 개인의 가족사가 아니다.

우리는 흔히 과학적 사고를 말할 때 변증법을 역설하고 올바른 삶을 위해서는 변증법적 사고를 해야 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변증법적 전개과정은 어떨까? 새것이 낡은 것을 극복한다는 진리는 한 사람이 태어나고 성장하고 결혼하고 또 태어나고.. 그것은 사람의 역사에도 적용되는 게 아닐까? 물론 육아와 가사노동의 사회화 라는 조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황이지만 말이다. 그것은 객관적 현실조건을 극복하는 것은 그 현실에 절박한 이해관계를 갖는 사람이 많을 때 더욱 창조적이고 빠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흔히 애를 키운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 말은 부모의 입장에서만 본 것이지 사실 아이들은 미숙한 부분들을 정성껏 도와주면 스스로 자란다. 그렇다면 혹 아이자신의 노력은 생각지 않고 모든 것을 부모가 (엄마가) 책임져야 한다

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 낳고 키우는 것이 자신없는 것은 아닐까? 적어도 내 아이만은 이렇게 키우고 싶다는 부모의 희망사항을 접어두고, “내 아이도 탁아소 자모가 아이 키우듯이, 힘들어 보이지만 때론 아이 크는 재미에 행복을 느끼기도 하면서 키워 보지 뭐 !!” 한다면 어떨까?

그럼에도 당장 내일로 다가온 활동가로서의 삶과 육아의 병행은 생각만 같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럴때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공동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한다면 그리 불가능하지는 않으리라 생각한다. 어린 인격이지만 몸이 성장하고 인격이 형성되는 것을 보면서 서로의 노고가 씻기는 순간들이 머지않아 다가오기 때문이다. 결혼과 육아는 인간에 대한 이해와 배려의 폭을 넓혀준다. 그리고 부부 공동의 육아를 실현하는 지난한 과정을 통해 한 남자를 의식화시킬 수 있고 그것은 육아의 사회화를 위해 평생 함께 싸울 동지를 얻는 과정이기도 하다.

**** 축하합니다.

.부산지역위 강숙진 (아기자람터) 교사가 지난 7월 6일에, 인천지역위 이명숙 (햇살어린이집)교사가 7월 22일에 아들을 출산하셨습니다.

.7월1일 부터 부산지역위 대표인 강애란 교사가 새날 어린이집에서 꼬마동산으로 가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꼬마동산의 교사부족을 해결하고 활동력을 강화하기위해 지역에서 취해진 조치라고 합니다.

.동부지역은 오래동안 자활을 해오던 나은미씨가 오손도손애기방에, 한양대 평생교육원에서 곧 수료를 마치실 문형아씨가 개나리동산에서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부천지역 홍양노조에서 일하시던 임미란 씨가 부천 튼튼이 놀이방 교사로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인천지역에 세쌍둥이 탁아방에 조미숙씨가, 엄마방에 이은희씨가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연합회 소식

< 서울시 보육위원회 열려 >

지난 7월 21일 서울시 보육위원회가 열렸다.

< 올바른 직장탁아 설치를 위하여 -교육 선전 지침서 발간>

지역사회탁아소 연합회는 서울 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노동자회,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여성국과 함께 직장탁아소에 관한 사업장내 교육선전을 위한 지침서를 7월 6일 발간하였다. 자료집은 노동운동과 탁아, 직장탁아소와 노동조합, 직장탁아소 설치에 관한 정부시책의 문제점, 아동양육의 새로운 장, 탁아소에 관련된 내용 및 탁아소에 아이를 맡기는 여성들의 글을 모았으며, 오리엔트 직장탁아소의 사례를 실었다.

< '92 지탁연 하계 수련대회 열려 >

지탁연 소속 탁아소 교사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7월 30일에서 8월 1일까지 대전에서 하계수련대회가 열렸다.

< 일본 보육교사 지탁연 사무실 방문 >

8월 6일 일본 오오사카 「유유아 발달 연구소」에서 17명의 연수단이 지탁연 사무실을 방문, 회장단 및 지역대표들과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탁아상황을 함께 이야기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하기로 다짐하였다.

< 여성단체연합 하기수련회 참여 >

지난 8월7일에서 8일까지 송실대 사회봉사관에서 「여성단체연합 '92 하기정책수련회」가 있었다.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이 참석하여 “현실사회주의권의 붕괴원인과 한국 사회

운동의 방향에 관한 논쟁점"이란 주제로 박형준 (동아대)교수의 강의를 듣고 "전환기의 한국사회와 한국 여성운동의 과제"라는 주제발제를 듣고 분발토론을 벌였다.

지역위원회 소식

<북부>

7/15 임시 지역위 월례회의 :상반기 활동평가

<중부>

또래 아가방 :7/7 자모회,7/27~28 여름캠프 (가평군 산유리)

7/29~8/9 여름 방학

해송아기둥지: 7/4 변민양 선생 치료비 마련을 위한 일일 호프 (동국대 국문과에서 주최) 7/9 부모회, 7/27~8/9 여름 방학

개구장이 :7/27~28 여름 캠프(대성리),7/29~8/5 여름 방학

7/21 지역모임에서 수련회 준비

중부지역 아동교육분과에서는 언어영역에 대한 교재,교구제작및 평가작업중 이후 해송과 아기둥지가 공동으로 수지침 교육프로그램을 계획하고있으며

8/9 지역모임에서 상반기 지역활동평가및 하반기계획과 지역모임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또한 규율과 규칙에 관한 각집의 토론과 보고서를 작성키로 함.

<동부>

오손도손 애기방 :어머니 학교 교재 준비,

<봉천>

7/25 관악.동작 민주단체 협의회 주최 "통일 문화제"에 참여하여 아이들 그림전,사진전,아이들 노래 경연대회에 세 탁아소 출전.

7/27~28 봉천지역 공동 캠프 (경기도 용문사)

7/29~8/5 씩씩이 놀이방 방학

7/30~8/15 봉천동 애기방 방학

7/29~한달간 서초동 꽃동네 놀이방은 철거관계로 방학

<구로>

7/2~3 지역공동 아동캠프가 수원 그랜드 캠프장에서 열려,아동 92명 참가.

7/4 신입교사 교육완료 :3회이상 참석해야 수료로 인정,교육기간이 너무 늘어 긴장감 줄어들고 일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음이 평가되고 이후에는 각 단위에서 배려하는 가운데 집중적인 교육실시키로.

7/11,8/29 지역을 세개탁아소씩 자모조직사례를 주제로 소공동자모회 갖음.

7/12 아동교육분과에서는 아동 문제행동 사례집을 내기로

민간 탁아소 실태조사를 현재 실시 중:구로구내 신고된 41개소 탁아소 중 8개소가 폐소 하여 26개소 대상으로 조사 함.실태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구의원간 담회 준비 함.

7/25 지역위 MT

<안산>

7/5 진달래동산 '규율과 규칙'에 대한 논의,품성론 학습

7/11 오손도손 애기방 개원 2주년 기념 잔치

집 대표자회의 (7/7,7/15,7/22):아동지원금 사용에 대하여는 시설운영비로 비축이 필요함을 공감하고 소급액을 이용하여 안락위 사무실 마련키로.사용비율을 정해 각 집의 특수성을 반영키로하고,민간탁아소 두 곳 방문결과를 통해 '원장'모임을 구성키로 합의하고 목표와 내용을 논의.지역소식지 제작을 위해 8월중에 별도의 팀을 구성하여 민간탁아소 설명회전에 배포를 목표.상반기 활동평가와 하반기계획을 수립하고 원장모임 제안서 준비및 수련회 준비

7/10 임시월례회와 교사 재교육 : 하반기 지역설명회 개최 (목표로는 요구대회 이후 하반기 지원확대투쟁의 지역투쟁의 고리를 마련하고 민간탁아소와의 연대를 형성과 내부역량강화로 두고 안락위 교사와 자모가 중심이 되어 저소득층 지역의 민간탁아소 교사와 자모를 대상으로 하기로 함.시기는 10월경으로 예정)

탁아운동론 재교육:일본탁아운동사,8개국 탁아제도 비교,지택연 자료통해 소모임 구성:아동미술,수련회 직후 시작키로 함.

저소득층지역 민간탁아소 원장모임 추진 계획 (목표는 탁아문제해결주체를 저소득층 여성전체와 교사까지 확대하고 단련과정후 안락위 조직체제로 흡수키로 함. 준비주체는 안락위교사중 법정 원장자격있는 교사와 개특위장으로 두며 내용은 탁아 사업의 복지적 성격을 합의하고 비영리운영의 필요성을 공유,민탁 운영난의 원인 고찰하여 법과 정책의 문제점및 대안을 모색하며 아동교육의 통일적 내용을 마련,자모회 구성의 필요성과 내용을 마련하는 등 기타 운영상황을 점검하는 것이다.)

<안양>

7/16~17 지역교사 MT에 7명이 참석

안양지역의 교사교육을 위해 전 한무리 교사이며 지탁연 교육연구부원인 서은희 선생을 통해 회의전 교육하는 시간 갖기로 함.

다람쥐 놀이방의 경우 아직 자모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 어려움이 많다.

<인천>

6/27 지역위 월례회의

7/7 인탁위 사무실 마련 :나눔 어린이집 2층 (전화 032)863-7443)

지역대표,개특위장,교사조직분과장,자모조직분과장 1일 씩 상근

7/13 시청 방문하여 가정복지국장과 면담 :시의 시설운영비 지원절차와 경과에 대해 확인 (10일에서 18일까지 운영실태파악) 인탁위 소속 탁아소는 지원액에 변동 없을 것으로 알려짐.

7/15~16 공동 아동캠프

7/17 교사조직분과 주관으로 자원활동가 교육 :탁아문제의 발생과 필요성,탁아입법 투쟁사,아동교육 철학과 하루일과,자활의 역할과 자세

인천지역의 양성교육기관 설치를 요구하여 인천에서 보수교육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9월예정) 신고와 관련하여 시급한 회원만 우선 교육받기로 함,

7/29~30 인탁위 수련회 (계룡산)

인탁위는 60만원이하 지원에 대한 원칙을 확인하였는데,

1.타 탁아소에서 지원받는 아동-아동이 속한 탁아소에 지원금이 돌아가야 한다. 2.차등보육료의 문제-지원의 혜택은 탁아소의 모든 아동에게 돌아가야 한

다는 원칙을 다시금 확인하고 9월중 재조정 키로. 3. 지원시 장부정리와 보육료 잡부에서의 문제점들을 검토.

<수원>

7/20~21 아동교육분과에서는 수련회 전시물 공동 제작하고 방학 통신문 제작

7/22 지역위 월례회의 :상반기 활동 평가와 하반기 계획 논의

8/1~2 지역위 수련회

<대전.샘골 놀이방>

7월 자모회에서 60만원미만 가정의 자녀에 대한 정부지원대해 논의하고 요구대회 비디오 시청함.

7/9 구청에 민간시설 지원아동 조사 할 것을 요구함

7/20 재직증명서 또는 월급명세서를 첨부한 서류를 동사무소에 냄

7/21 동사무소에서 보호자 직접 면담을 요구함

7/24 상반기 평가및 하반기 계획을 위한 교사 회의

7/27~8/1 여름 방학

<대구>

민들레 어린이집 간사가 반상근 함.7/2 자모회. 8/3~8 여름방학

배꼽 마당 7/1 자모회,7/16 자활 모임 (교재 제작 준비).7/30~8/5 여름방학

7/23 월례회의

8/13~14 자활,어린이 공동 캠프

<부산>

6/22 여성단체장 모임에 참여.

아동교육분과에서는 공동계획안을 작성하고 일본 보육운동사와 "아이는~"중심으로 8월 월례회에서 교육을 준비중

개특위에서는 부산지역위내 미인가 탁아소에 대한 인가 요구이냐? 미인가된 탁아소에 대한 아동지원을 요구하는가에 대해 논의 중이며 개특위 회의에 여노회

실무자1인이 결합하여 활동 중.

7/11 걱정모임에 참여 : 요구대회 자료집 배부, 비디오 복사하여 전달하고 영유아보육프로그램과 일일교육운영안에 대해 논의함. 다음 모임에서는 국공립 탁아와 부탁위 탁아소 현황에 대한 발표를 할 예정임.

7/12 공동임원회 :요구대회 이후 지역사업을 함께 하기로 결의하고 2차모임을 통해 공동임원회 임원을 선출기로 함.

7/26 상반기 평가를 위한 전제교사 수련회

<군산.해뜨는 동산>

7/23~24 여름 공동체 생활

충남 공주에 있는 백제문화유적을 보며 조상들의 지혜를 배웠고, 면면히 흐르는 금강물에 몸을 씻고,물장구치며 신났다. 부모님의 곁을 떠나 탁아소 식구들끼리 오붓한 정을 나누며 어리지만 스스로 생활 할 수 있음을 실천했다.

<광주>

6/23 놀이방 협회 모임에 광주지역대표 참석 :각 놀이방 현황을 듣고 광주지역위에 대한 소개를 하였으며, 앞으로 분기별로 아동교육세미나와 행사를 같이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나누었음.

6/23 도담도담 아기둥지의 자모회 열려 :“아이버릇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을 하였는데 호응이 좋았다는 평가.

월산동 전세금 반환 청구소송 제기하여 7월22일 변론 재판예정임.

6/26 우리동네 아기둥지 “사랑의 놀이방”개원식 가짐

자원활동가 수련회 개최 (7/8~9) 방학(7/27~8/5)

오손도손 놀이방 방학 (7/24~8/30)

무진 어린이방 방학 (7/22~8/8),아동캠프 (7/23-24)

7/1 여특위 모임 참여: 학교내 어린이 성폭력 근절을 위한 여성 연대모임을 갖고 간담회를 개최기로,여성의날 제정 홍보작업과 여성주간 문화행사등의 내용으로 하반기 사업을 할 예정임.

7/6 조례안을 조례특위에 제출 :8월 의회때 검토될 예정이며,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을 정리중임.

7/13 교사 정기교육 :“아이들의 발달 단계특징”에 대하여

7/24~25 도담도담,우리동네 공동아동캠프를 순창 강천사에 열음.

:현재 광주지역위는 시청에 재정 지원에 대한 질의를 위한 준비작업을 벌이고 있다.

●●●◇★● 일하는어머니들과 아이들을 위한 주간 (가칭) ●●●◇■★●

지난해 10월 14일 제4회 서울경인지역 어머니대회를 중심으로

지택연 각 지역에서는 어머니큰잔치 등을 열었다. 올해에도

정부의 탁아정책의 문제점과 지택연활동의 정당성을 널리

홍보하는 한편 일하는 여성의 올바른 문화를 발굴하고 여성

노동자로서의 긍지를 바탕으로 각 지역간 연대의 꽃을 활짝

피우는 계기로 자리잡을 예정이다.

현재 각 지역의 어머니대회(가칭)의 일정과 내용은 아직 구체적

으로 나뉘어있지 않은 상황이나,9월말에서 10월초로 자리잡는 것으로

보인다. 9월의 추석연휴와 10월의 연휴에 준비기간이 얼마남지 않은

속에서 지택연 전 가족의 단합과 활발한 활동을 기대한다.

지택연 수련회를 다녀와서

- 광주 우리동네 아기동지 김삼순

활동을 시작하니 어언 10개월. 탁아소의 장기적 전망과 발전이 고민의 주가 되고 그럴수록 타 지역 상황에 목말라 있을 때 1년에 두번 전국의 탁아활동가들과 만날 기회가 왔다. 적지않은 나이라고 목에 힘주고 갔다 복날 맞은 개월이 되었던 (당시 평균 연령이 28~29세)동계수련회로부터 반년이 지난 사이 지택연은 2~3년이 젊어져 있었다. 특히 같은 연령층 조별 토론이 이루어져 쉽게 친해졌고 비슷한 고민을 토로할 수도 있어 굳건한 단결력을 보여주었다.

이 단결력은 공동체놀이때 확인되었다. 3개 동아리로 나누어 (푼수,웬수,영계)수비와 공격을 감행할때 웬수조와 영계조의 야합음모(?)에 명투성이가 된 채 부서졌지만 푼수조의 단결력이 적(?)들에게 얼마나 불안감과 위협을 주었는지 증명되었다. 그속에서 비록 졌지만 우린 참된 단결의 승리를 맛보았다. 이번 수련회가 또 나에게 준 의미는 직접 수련회를 준비과정부터 참여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점이다. 노래분과를 조직해 몇가지 손동작과 노래를 선보였는데 공연 시작 후 곧바로 피성과 아우성이었다. '갑자기 왜 야유를 보내는 거지?' '뭐가 잘못됐나?' 나는 당황했다. 그러나 잠시 후 박자를 맞추는 박수소리에 비로서 이해가 갔다. 그들은 우리의 지켜든 손끝에서 서로의 목표를 확인했고 허공을 가르는 굳센 결의를 모은 것이었다. 감격!

우리의 작은 몸놀림,노래가 이토록 동지에게 힘을 줄 수 있는데 ...

그렇다! 가능성있는 사업은 통크고 대담하게 벌려야 한다. 이번 공연을 통해 문화선전대의 중요성을 재인식했고, 각 탁아소에서도 여기서 모아진 결의를 구체적힘으로 발현 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참석했던 140명 전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행사에 열정적으로 참여해 마지막 계룡산 등반까지 무사히 마쳤다. 하고픈 말 못 다하고 어렵게 헤어져 귀향 열차에 몸을 싣고 열핏 본 신문에 31일 새벽에 김영삼이 계룡대를 산책했다는 기사가 있다. 이번엔 간발의 차로 우리를 비켜갔지만 올 연말에는 숙명적 대결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수련회에서 모아진 힘으로 올해 기필코 민주대연합,민주정

부를 우리손으로 건설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련회를 준비하신 모든분께 감사드립니다.

인천지역 위원회 여름 수련회를 다녀와서

-인천 햇살 어린이집 이해정

아이들과 함께 있고 싶다는 커다란 소망을 이룬지도 어느새 1년이 되어가고 있다. 처음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탁아소생활을 하며 스스로의 한계에 부딪쳐 무척이나 힘들어 했을 때 맞이했던 인탁위 여름 수련회가 나에게 다시금 힘을 얻고 새롭게 일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다. 인탁위 여름 수련회를 발판으로 하나하나 배워나가고 있던차에 그만 신경통이 도져 3개월간의 공백기간이 생기면서 나는 또다시 심한 좌절감과 절망감에 빠져 있었으나 햇살 가족들의 염려에 어려운 순간을 극복해내며 다시 첫걸음을 내딛는 어린아기처럼 조심스럽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이제 두번째 맞이했던 인탁위 여름 수련회가 그리 새삼스러울 것도 신기할 것도 없었지만 언제나 새롭게 만나는 선생님들과 걱정,의 눈빛을 보내는 선생님들에게서 더할 수 없는 따뜻한 정을 느낀다.

지택연 수련회가 열리는 계룡산에 하루먼저 도착하여 집을 정크히하고 서로 잘 알지 못했던 선생님들과 가벼운 눈인사를 하며 따뜻한 저녁밥을 지어먹고 한 자리에 둘러 앉았다. 우리의 이번 수련회 주제가 "서로 알기"여서 서로 몸을 부대끼며 친해질 수 있는 시간과 인탁위의 구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 수 있어서 신진교사들의 수줍지만 힘찬 결의와 경력교사들의 당찬 각오가 이어지는 가운데 어느덧 계룡산의 밤은 깊어가고 우리는 도란도란 밀렸던 얘기를 하느라 하룻잠을 설치다. 다음날 아침 눈썹 낀 눈을 부비며 아침인사를 건네고 각 부서의 상반기 활동보고와 조별로 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진후 우리는 인탁위 수련회의 모든 일정을 끝맺었다. 작년에 이어 두번째 맞이했던 인탁위 여름수련회는 그 준비과정에 있어서 나부터도 힘있는 결합을 해내지 못했던 점을 다시 한번 돼새기며 이번 수련회를 통해 내가 해내야만 하는 일을 나 혼자서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어떠한 자그마한 일도 각자가 처한 처지와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힘닿는데까지 배려하고 모든이가 함께 큰 걸음을 뚫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세야 말로 우리 모두의 할일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번 수련회에서 함께 흘렸던 땀방울의 의미가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로서 다음 수련회까지 끈끈하게 이어졌으면 한다. 수련회 첫날 밤새 불어왔던 그 서늘한 바람속에서 나누었던 끈끈한 애기처럼 ..

수원지역 위원회 여름 수련회를 다녀와서

-수원지역외 용기종기 놀이방 이주영

계룡산에서 나누었던 눈물 번지는 뜨거운 악수와 보듬음의 양금을 간직한채 우리는 아이벳 놀이방의 김수연 선생님택을 찾아 버스 정류장을 서성거리야만 했다. 계룡산을 다시 오르는 듯한 언덕 오르기를 하고 다섯층을 올라가서 다다른 그곳, 우리는 모두 목욕부터 원했다. - 당연하지! 지난 3일동안 몸은 물을 너무도 원하고 있었으니까!-

저녁식사 후 본 일정으로 들어갔다. 지역수련회를 빙자(?)한 친목다지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중앙 수련회 소감을 나누는 시간과 이후의 각 집과 각 개인의 전망을 이야기 할 때는 냉장고에 사다 놓은 맥주와 수박이 소외당해 버릴 정도로 열띤 분위기였다. 모두 합해서 이제 8명. 용기종기, 아이벳 이외에 이번에 새로이 시작하게 될 꿈나무와 오산 지역까지 두 곳이 늘어나 수원 지역위는 거의 두배가 넘는 성장을 하는 중이다. 비록 이번 수련회에는 기존 교사 2명외에 모두 처음 참여하는 신진교사들이지만 조직에 대한 믿음과 수원지역에 대한 희망을 한껏 계획해 볼 수 있었던 기회였다.

중앙의 결의에 맞추어 현 시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안인 법 개정 투쟁에 있어서는 모두 적극적인 추진을 결의하고 현재 활동하고 있지 못하는 개특위 활동을 다시 본격적으로 할 것을 다짐 하였다. 수련회의 연속으로 피곤한 일정이었지만 중앙과 지역의 매개고리를 놓치지 않고 연결 시킴으로써 중앙에서의 결의를 지역에서 탄탄히 다질 수 있었다.

신진교사로서 지역의 막내이자 떠오르는 세대대로서 지역과 내 공간에서 최선을 다하며 조직의 틀속에서 노력해 나가는 교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얼마 안되는 수박과 알콜이었지만 몸 부대끼며 나누는 그 시간에는 모두

가 잔잔한 정을 느낄 수 있었다. 쓰러져 잠드는 붉어진 모두의 얼굴에는 동지에 의 깊은 정과 내일의 붉은 해가 걸려 있는 듯하였다.

제2회 부천지역 가족놀이마당에서

-부천 룸비니 동산 전선주

버스로 20분. 왁자지껄 흥분된 아이들을 진정시키고, 내린곳은 부천 원미동 작은 산 밑의 절이다. 근사한 바다는 아니지만 간이 수영장이 설치돼 있고, 낮은 산과 눈에 익지 않은 커다란 부처님이 있고, 뿔 수 있는 넓은 마당과 아이들만을 위한 하루가 있는 곳이다. 장마중에도 다행히 날은 맑았다. 오글오글 들어 앉은 수영장에서의 물놀이. 물감을 놓은 물총으로 친구 얼굴에 낙서도 하고, 엄마가 만들어 준 인디언 치마를 입고 모닥불을 피웠을 땐, 그만 모두 이글 이글 타는 불에 겁에 질려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다. 신나는 하루가 지나고, 저녁해가 떨어질 무렵 엄마아빠가 한두분씩 오시고, 아이들은 피곤한 몸을 가누지 못하고 멀리 돌리는 엄마 아빠의 노래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다. 애들 캠프에 무슨 아빠까지 가야 하나며 의아해 하던 신참엄마도 오랫동안 아빠와 팔짱끼고 걸어 올라온 숲길의 밤에 들었는지 좋은 낮으로 웃는다.

6개 탁아소 엄마아빠가 동그랗게 앉으니 족히 150명은 돼 보인다. 오랜만에 연애시절처럼 목소리를 맞추어 노래도 하고, 탁아소의 명예를 걸고 게임도 하고, 늦은밤에 손에 손잡고 동그랗게 둘러 선 엄마아빠들의 모습이 너무나 든든해 보인다. 오늘은 그저 노래를 하기위해 잡은 저 손이 내일은 우리아이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시 굳게 맞잡을 것을 믿는다. 좋은 느낌으로 하루를 보내고, 내일의 일정도 무사히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며..

소식지가 드디어 제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 하계수련회 기간내 각 지역에서 내주신 여러 이름중에 부천지역에서 내주신 “함께 가는 길”이 중론을 모은 결과 소식지의 이름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소식지이름을 위해 애쓰신 지탁연 가족들 모두가 사랑하는 “함께 가는 길”이 되었으면 합니다.

소식지 편집부원이 보강되었습니다. 보강된 편집부원으로는 권혜진(구로 구로놀이방), 이정희, 유정은 (정책연구부원)입니다. 기존의 정희연 (부회장)과 서정은 (조직간사)과 함께 편집부원은 5명입니다. 보강된 인원만큼 알찬 소식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호는 제목도 정해지고 편집진도 보강되어 훨씬 힘을 보태받으며 만들 수 있었다. 또한 교사투고도 다양하게 들어와 편집진을 신나게 해주었다. 그러나 아직도 더 많은 교사들의 참여를 “함께 가는 길”은 원하고 있다. 모쪼록 교사 여러분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을 바라며 사실 너무 더워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개인적으로는 매우 힘든 날이었다. 끝나고 나면 곧바로 다음호 준비를 해야겠지?

아이구 ! <연>

소식지가 이번호부터 이름을 갖게되어 가장 기쁘다. “함께 가는 길”은 덜 힘들다. 읽히는 “함께 가는 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그리고 교사들의 손때묻은 원고가 마구 쌓여 편집부가 즐거운 비명을 지를 날이 곧 올 것을 기대하며. <진>

영성하게 만들었던 준비호에서 조금은 편안하게 편집되었다는 창간호. 그리고 2호가 나왔다. “함께 가는 길”은 나에게 날이 갈수록 느는 타자숨씨에, 보이는 활자마다 오타를 찾고 편집 짜임새를 눈여겨보게 했으며 컴퓨터 문맹자에서 벗어나게 해주었다. 좋은 날 사무실에 죽치고 앉아 원고를 뒤적이면서 나의 청춘은 어디로 가는지 상관없는 것은 지탁연 가족이 기다리면서 읽을 소식지가 내 손안에 있음이라 ! <은>

제목: 함께 가는 길 제2호
발행인: 최현숙
편집인: 정희연, 권혜진, 이정희
유정은, 서정은
발행일: 1992.8.10
발행처: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구로구 구로5동 41번지 16호 2층
838-3296~7

